



저작자표시-비영리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 이차적 저작물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교육학석사학위논문

고등학생의 시장에 대한 태도 차이에 관한 사례 연구

- 선택과목 경제와 AP경제학을 중심으로 -

A Case Study on High School Students' Different
Attitudes Toward Markets

- Based on High School Economics and AP economics -

2012 년 8 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사회교육과 일반사회 전공
김 태 환

국문초록

사회과 교육의 일환으로서의 경제교육은 경제 지식을 바탕으로 경제 현상을 이해하고, 이를 토대로 합리적인 의사 결정을 하는 책임있는 민주 시민을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따라서 고등학교 선택과목 경제 수업을 수강한 학생들은 일상생활에서 마주하는 경제적 문제에 대해 합리적으로 판단할 줄 알아야 하며, 그 과정에서 공동체와 사회적 가치, 경제 윤리 등을 고려할 수 있는 경제적 시민성을 갖추어야 한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경제 교육이 소기의 목표를 달성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강한 의구심이 든다. 입시 위주의 교육 현실에서 학교 안 경제 수업은 경제 이론과 개념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기존의 많은 연구들에서도 수업 현장에서 경제 교육은 경제학 개념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교사와 학생 모두에게 기피대상이 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경제 교육이 실제로 교육적 목표를 달성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하지만 기존의 연구들을 검토한 결과, 경제 수업을 수강한 학생들의 경제에 대한 태도 또는 경제학에 대한 태도 등을 단편적으로 확인하는데 그치고 있다. 경제 교육을 받은 학생들이 어떤 태도의 변화를 보이는지에 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입시 위주의 교육 현실 속에서 경제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확인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경제 교육을 받은 학생들과 경제 이론과 개념을 중심으로 경제학 교육을 받은 학생들 간의 비교를 시도한다. 구체적으로 선택과목 경제 수업과 AP경제학 수업의 수강 유무를 독립변인으로 설정하여 연구를 실시하였으며, 이를 검증하기 위한 연구 가설은 다음과 같다.

◇ 연구 가설 : 선택과목 경제 수업을 수강한 학생들과 AP경제 수업을 수강한 학생들 사이에 시장에 대한 태도의 차이는 없을 것이다.

연구 가설을 뒷받침하기 위해 구성한 하위 가설은 다음과 같다.

◇ 1. 선택과목 경제 수업을 수강한 학생들과 AP경제 수업을 수강한 학생들 사이에 경제와 개인금융에 대한 태도차이는 없을 것이다.

◇ 2. 선택과목 경제 수업을 수강한 학생들과 AP경제 수업을 수강한 학생들 사이에 고용에 대한 태도차이는 없을 것이다.

◇ 3. 선택과목 경제 수업을 수강한 학생들과 AP경제 수업을 수강한 학생들 사이에 경제와 관련된 정부의 역할에 대한 태도차이는 없을 것이다.

◇ 4. 선택과목 경제 수업을 수강한 학생들과 AP경제 수업을 수강한 학생들 사이에 경제적 자유에 대한 태도차이는 없을 것이다.

연구를 위하여 경기도 소재의 고등학교 3학년 97명을 대상으로 선택과목 경제 수업을 수강한 학생 48명과 AP경제학 수업을 수강한 학생 39명으로 나누어 양적 사례연구를 실시하였다. 두 집단 간 평균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t검정을 실시하였으며, 논의를 풍부하게 하기 위해 학생 면담을 추가적으로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개인금융, 정부의 역할, 경제적 자유에 대한 태도와 관련해서는 집단 간 유의미한 평균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다만 고용에 대한 태도에 관련해서만 유의미한 차이가 확인되었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의의를 지닌다.

첫째, 본 연구를 통해서 경제 교육을 받은 학생들과 경제학 교

육을 받은 학생들 사이에 시장에 대한 태도의 차이가 있음을 실증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가설 검증을 통해서 입시 위주의 교육 현실에서 경제 교육이 경제학 교육이 아닌 사회과 교과목으로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교육을 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

셋째, 기존의 경제 교육과 관련된 연구들이 경제 이슈나 경제학 자체에 대한 학생들의 의견이나 태도를 확인하고 분석하는데 치중한 것과는 달리 본 연구는 경제 교육을 받은 학생들과 경제학 교육을 받은 학생들 간 집단 비교를 통해서 교육적 의도가 전달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

주요어 : 경제교육, 경제학 교육, 선택과목 경제, AP경제학,
경제적 시민성, 시장에 대한 태도

학 번 : 2009-23402

목 차

I.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1
2. 연구 문제와 주요개념	3
3. 연구의 의의 및 한계	6
II. 이론적 배경	9
1. 경제교육의 목표와 내용	9
(1) 경제교육의 목표	9
(2) 경제교육의 내용	14
2. AP경제학의 목표와 내용	17
(1) AP경제학의 목표	17
(2) AP경제학의 내용	18
3. 시장에 대한 태도	21
(1) 경제적 태도에 대한 선행 연구	21
(2) 시장에 대한 태도 측정	23
(3) 경제적 시민성	26
4. 교실 안 경제교육의 현황	28
III. 연구 설계	30
1. 연구 가설	30
2. 연구 방법	31
(1) 사례 연구	31
(2) 자료의 수집 및 분석	33

3. 연구 변인	35
(1) 종속 변인	35
(2) 독립 변인	35
4. 연구 대상	36
5. 조사 도구	37
IV. 결과 분석 및 논의	39
1. 기술통계	39
2. 가설 검증 결과	41
3. 논의	42
V. 결론	50
1. 요약	50
2. 제언	51
참고문헌	55
Abstract	59

표 목 차

<표 1> 선택과목 경제 내용 체계	13
<표 2> 경제 내용에 따른 유형의 분류	15
<표 3> AP경제학 내용 체계	18
<표 4> 경제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25
<표 5> 학생들이 전문 경제학자들의 합의한 내용들에 대해 동의하는 정도	38
<표 6> 영역별 검사 결과 기술통계치	39
<표 7> Levene 등분산 검정	40
<표 8> 경제 교과에 따른 시장에 대한 태도의 독립 t 검정 결과	41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외환 위기와 금융 위기 등 각종 경제 위기를 겪으면서 경제에 대해서 잘 아는 것이 필수라는 인식이 사람들 사이에 널리 퍼지게 되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많은 양의 경제 관련 서적들이 쏟아지고, 언론사, 연구소, 금융기관 등에서 경제 강좌나 연수가 실시되는 등 학교 밖 경제교육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현실적으로 이러한 학교 밖 경제교육은 많은 역할을 하고 있으며, 학교의 경제 교육은 이러한 경제 열풍에 대한 책임을 일정부분 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김경모, 2004). 하지만 중등학교 정규교육 과정의 경제교육은 경제와 관련된 기본적인 지식, 개념을 전달하여, 이를 바탕으로 학생들이 일상생활에서 경제적 사고 및 판단을 할 수 있게 하는 초석을 다진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상당히 크다.¹⁾ 따라서 학교 현장에서 경제 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학생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경제 교육을 담당하는 사람들은 경제학적 이론과 개념을 바탕으로 특정한 교육적인 의도를 가지고 경제교육에서 다루어야 할 내용을 선택하고 재구성한다. 궁극적으로 그러한 의도가 학생들의 인식과 태도에 영향을 미쳐 경제적으로 합리적인 판단을 할 줄 아는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한다. 경제 교육의 목표가 적절하게 달성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경제교육을 받은 학생들의 인식과 태도에 관한 연구는 지속적으로

1) 경제교육(현상)은 장소를 달리해서 두 군데서 일어나는데, 하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공식적인 제도교육이 이루어지는 학교에서 일어나며, 다른 하나는 주로 일반 시민 혹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학교 밖에서 이루어진다. 어떤 의미에서 전자는 후자의 기본이 되는 것이며, 후자는 새로운 유형으로서의 전자의 보충적인 것 일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학교 경제교육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조영달, 1991).

이어져 왔다(장경호 외, 2010; 최병모 외, 2004; 한경동, 2008). 이들 연구는 경제 현상이나 문제, 그리고 경제학 이론에 대한 경제교육을 받은 학생들의 인식이나 태도를 조사하여 분석하였다. 이를 토대로 경제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그러나 선행 연구들은 대부분 경제현상이나 경제수업, 경제학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을 조사하는데 집중하고 있어서, 학교 경제교육이 실제로 인식과 태도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변화를 이끌어 내었는지에 대해서 알기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다.

일반적으로 경제 교육을 받은 학생들은 경제 지식을 바탕으로 일상생활에서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고 나아가 경제를 포함한 사회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사회과 내에서 경제영역은 사회과 교사나 학생들 모두로부터 어렵고 힘든 과목, 현실과의 관련성이 부족한 과목으로 인식되어 왔다(한상윤, 1992: 72-80). 수업 현장에서 경제 수업이 이론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학생이나 교사입장에서 현실적인 경제 수업의 목표가 내신 관리와 객관식 시험인 수능에서 고득점을 획득하는 것이기 때문에 경제교육의 본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업이 진행되고 있지 못하다(최병모, 김정호, 허인숙, 2004: 95-96). 수능과 직접적으로 연계되는 EBS 경제 강의를 보아도 경제 이론을 어떻게 하면 쉽게 전달해서 학생들이 정답을 고르게 할 것인지에 중점을 두고 있다. 교사와 학생 모두 경제 이론 위주의 수업이 달가울 리가 없다. 하지만 입시라는 현실 앞에서 경제교육이 지향하는 인식 및 행동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수업은 기피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지속적으로 현실을 설명하는 이론과 일상생활의 사례를 늘리고, 경제학 이론들을 많이 줄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문제는 아직 해결되지 않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²⁾ 경제 수업이 경제학 이론을 암기하는 수업으로 인식되

2) 경제를 담당하는 교사들이 꼽은 학교 경제교육의 가장 큰 문제점은 '이론위주의 경제교육'이었다(김진영, 박영석, 이민정, 2009: 15). 학생들 역시 이론위주의 어려운 경제 이론들이 경제수업을 기피하게 되는 첫 번째 원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면서 중등학교 사회과의 경제영역은 교사와 학생 모두로부터 경원시되어 왔으며, 이 분야와 관련된 연구도 교과교육 전문가보다 경제학적 배경을 가진 학자들에 의해 주도되었다(김경모, 1997).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현실에서 경제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실증적으로 확인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경제교육을 받은 학생들과 단순하게 경제학 이론과 개념을 중점적으로 배운 학생들 간의 비교를 시도한다. 경제교육을 받은 학생들이 경제학 지식만을 배운 학생들과 시장을 바라보는 태도에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하고, 이를 바탕으로 경제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함의를 찾고자 한다.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우선 경제교육의 목표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교육적 의도는 경제교육의 목표 안에 담겨있을 것이며, 경제교육의 목표는 교육과정에 나타나게 된다. 교사와 학생들은 교육과정의 목표를 따르고, 얼마나 교육과정에 맞게 수업을 진행했는지에 따라 교육의 성공 여부가 결정된다. 따라서 경제교육의 목표를 확인함과 동시에 경제 영역의 교육과정도 알아볼 것이다. 그리고 경제학 교육으로서의 경제 수업인 AP경제의 목표와 내용 체계를 확인한 다음, 시장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는 설문지를 바탕으로 두 수업을 수강한 학생들 간에 태도의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하고자 한다.

2. 연구 문제와 주요 개념

(1) 연구 문제

앞에서 제시한 문제의식에 기초하여 본 연구는 선택과목 경제 수업과 AP경제학 수업을 받은 학생들 사이에 시장에 대한 태도 차이가 있는지

를 알아보고자 한다. AP 경제학의 경우 사회과학 학문으로서의 경제학 그대로의 내용과 체계를 가지고 있으며, 학생들에게 경제학 원론 수준의 지식을 전달하여 상위 단계의 경제학 수업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는 것이 목적이다³⁾. 반면 선택과목 경제의 경우, 학문으로서의 경제학의 지식 내용과 체계를 그대로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교육적 의도가 가미된 경제교육의 목표에 의거하여 선별되고 재구성된다. 따라서 같은 경제학 지식을 토대로 하지만 지향점이 다른 두 경제 수업을 수강한 학생들의 시장에 대한 태도에는 차이가 있을 것임을 추론할 수 있다. 하지만 한국의 입시 체제 하에서, 실제 현장에서의 경제교육은 경제학 지식을 전달하는데 경도되어 있기 때문에 그 목표를 온전히 달성하고 있지 못하고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경제교육을 받은 학생들과 경제학 교육을 받은 학생들 사이에는 시장에 대한 태도의 차이가 있는가?’를 연구문제로 설정하였다.

(2) 주요 개념

1) 경제교육

본 연구에서 이야기하는 경제교육은 사회 교과목의 하나인 선택과목 경제 과목을 의미한다. 7차 교육과정에서는 고등학교 1학년 과정에서 ‘사회’ 교과서의 경제 단원을, 고등학교 2학년, 3학년에서는 선택과목 경제를 배우며(현재 고3),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선택과목 경제만을 배우게 된다(고1, 2). 본 연구에서의 경제교육은 사회 교과의 경제 단원이나 선택과목 경제를 가르치는 것으로 한정한다. 학교 경제교육은 사회과 교육의

3) 조영달(2010)에 따르면 경제학은 경제현상을 분석하고 설명하는 것을 통해 원리를 규명하고 미래를 예측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테두리 내에서만 논의될 수 있으며, 사회과 교육이 달성하려 하는 시민성 함양이라는 목표를 벗어나서는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이소연, 2012: 6-7).

2) 경제학 교육

경제학 교육(economics education)이라는 용어는 경제교육(economic education)과 대비되는 개념으로 오인하기 쉬우나, 일반적으로 경제교육 안에서 경제학적 지식, 개념 등을 중심으로 하는 것을 경제학 교육이라고 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이와는 달리 안현효(2005)의 경우, 경제교육을 중등학교의 경제교육으로, 대학에서 경제학원론과 미시, 거시 등의 배우고 가르치는 것을 경제학 교육이라고 하면서 분명히 구분하고 있다. AP경제학은 대학에서 가르치는 경제학원론을 고등학교에서 미리 가르치고 배우는 것을 목적으로 하므로, 본 연구에서는 AP경제학을 경제교육의 한 가지 영역으로서가 아닌 경제학 강의로서의 경제학 교육이라 전제하였다. 즉 본 연구에서의 경제학 교육은 경제교육의 일부 또는 한 가지 영역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순수하게 주류 경제학의 지식을 전달하는 교육 행위를 의미한다.

3) 시장에 대한 태도

기존의 경제와 관련된 설문 조사들을 살펴보면 인식, 태도, 신념 등 다양한 용어들을 사용하고 있다. Walstad(1987)는 실증적 측정을 목적으로 할 때에는 가치관, 의식, 인식, 신념 등의 개념보다는 태도에 대한 논의가 보다 효과적임을 언급하고 있다(한경동, 2008: 146 재인용).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시장을 바라보는 '태도'라는 개념을 사용하기로 한다. 태

도에 대해서는 학자들마다 조금씩 정의가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개인이 어떤 사건이나 문제, 물건이나 사람 등에 관해서 어떤 인식과 감정 및 평가를 가지며, 거기에 입각하여 그 대상에 대해 가지고 있는 반응의 준비상태⁴⁾’로 정의한다.

태도에 대한 개념 정의를 바탕으로 ‘시장에 대한 태도’를 정리하면 선택과목 경제 또는 AP경제학을 수강한 학생들이 경제에 대해 어떠한 인식이나 감정을 가지고 시장경제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몇 가지 현상들에 대해 가지는 반응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경제 현상’의 범주가 넓고, 이를 측정하기 위한 적절한 설문지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시장 경제’로 범위를 한정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시장에 대한 태도는 경제학자들이 동의하는 몇 가지 현상들에 대해서 학생들이 얼마나 근접한 의견을 가지고 있는가를 의미한다.

3. 연구의 의의 및 한계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의의를 가진다.

첫째, 연구 결과를 통해 경제교육을 받은 학생들과 경제학 교육을 받은 학생들 간에 시장에 대한 태도의 차이가 존재하는지 알 수 있다. 기존의 연구들이 조사 대상이 되는 학생들의 경제학이나 경제적 이슈에 대한 인식이나 태도를 평면적으로 조사한 것에 비해 두 개의 다른 경제 수업을 받은 학생들의 태도를 비교 분석했다는 점에서 기존의 연구들과 차별성을 가지며, 동시에 경제교육에 관련한 논의를 풍부하게 한다.

둘째, 연구 가설 검증을 통해 경제교육이 경제학 교육과 차별화되는 사회과 교과목으로서의 목표를 달성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있

4) 국립국어원 제공 네이버 백과사전(www.naver.com)

다. 두 집단 간 차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면 그 이유가 무엇이며,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지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 기초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목표나 지향점이 아닌 현장을 관찰하고 분석한다는 점에서 경제 교육이 처한 현실에 대한 실증적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수업 현장에서 경제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이유나 원인을 찾아내기 위한 논의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 더불어 본 연구문제가 보다 더 의미 있기 위해서는 추가적으로 이와 관련된 질적 사례연구가 진행되는 것이 바람직한데, 본 연구는 이러한 후속연구를 위한 초석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를 가지고 있다.

경제 교육을 받은 학생들이 어떠한 인식이나 태도를 가지게 되었는지를 측정할 수 있는 적절한 도구가 없기 때문에, 이번 연구를 하는데 있어서 EAS(Economic Attitude Sophistication)를 차용하였다. 하지만 EAS는 수업의 효과성을 검정하는데 있어 일정한 한계가 있다. 그 이유는 EAS의 목적이 학생들의 경제에 대한 의견이 옳고 그름을 측정하거나, 경제학자들의 의견을 받아들이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의 의견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일치하는 정도(또는 경향)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Walstad and Soper, 1983). 본 연구에서는 선택과목 경제와 AP경제학 수업의 목표와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EAS도 차이가 날 것이라고 했지만, 직접적으로 집단 간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선택과목 경제 또는 AP경제학 수업의 효과성을 검정할 도구가 있어야 한다. 나아가 경제적 시민성을 측정할 수 있는 도구가 개발된다면 사례 연구가 아니라 일반 고등학교를 상대로 연구를 진행하여 경제 교육의 효과를 일반화 할 수 있는 연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후속 연구에서 이러한 연구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

사례로 삼은 C고등학교는 특수목적고등학교로서 부모들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고, 시험을 거쳐 선발된 학생들이기 때문에 학업 성취도가 일

반 인문계 고등학교에 비해 높은 편이다. 이것은 두 가지 의미를 지닌다.

첫째, 기존의 연구(장경호, 한경동, 2010)에 따르면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학생의 학업 성취도는 경제적 태도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므로 본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하는데 무리가 있다. 이것은 사례연구 자체의 특징이자 한계일 수도 있으나, 사례연구가 반드시 일반화를 전제로 하는 것은 아니므로 현상을 확인하고 사례를 제시했다는 측면에서 본 연구의 역할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⁵⁾ 두 번째로 나이와 학업 성적, 부모들의 SES가 어느 정도 통제되었기 때문에 집단 간 차이에 영향을 준 가장 큰 요인은 선택 과목 경제와 AP경제학의 수강여부라고 판단할 수 있었고, 이에 대하여 t검정을 실시하였다. 후속연구에서는 포괄적인 사례를 바탕으로 다양한 변인들을 고려한 연구 방법을 사용하여 보다 발전적인 결론을 도출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단일사례연구(사례가 1개)보다는 다중사례연구가 더 바람직하다. 1개의 사례를 연구하는 경우 사례 자체가 매우 예외적이거나 조건이 인위적이라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2개 이상의 사례를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한다면 발생하는 문제를 줄이고, 조금 더 의미 있는 연구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 본 연구는 1개의 사례만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단일사례연구의 문제에 노출될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중요한 요소인 AP 경제학을 정규 교과목에서 선택하고 있는 학교는 거의 없으며, 선택과목 경제와 AP경제학을 분리해서 배우는 경우는 극히 드물어 단일사례연구를 수행하였다. 1개의 사례이면서 표본이 작다는 한계에도 불구하고 사례에서 얻어지는 결과는 사회과 교육으로서의 경제교육에 충분히 함의를 가질 것으로 본다.

5) ‘하나의 사례로 어떻게 그 결과를 일반화시킬 수 있는가?’는 사례연구에 가장 흔히 제기되는 질문이다. 사례연구는 이론적 명제의 대한 일반화가 가능하다는 것이지 모집단을 대상으로 사례를 일반화하는 것이 주요 목적은 아니다. 사례연구의 목적은 통계적 일반화가 아니라, 사례연구를 통하여 이론을 확장하고, 그것을 일반화(분석적 일반화)하는데 목적이 있다(Yin, 2003).

II. 이론적 배경

경제교육을 받은 학생들의 시장에 대한 태도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교육과정이 담고 있는 경제교육의 목표를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경제교육의 목표는 사회과 교육과정에 분명하게 제시되어 있으며, 교육과정에 나타난 목표는 교과서나 교과서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다양한 교재를 통해 수업 현장에서 학생들에게 전달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번 장에서는 우선 경제교육의 목표가 무엇인지 확인하고, 그러한 목표를 토대로 내용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그리고 비교대상이 될 AP경제학 수업의 목표는 무엇이며, 그 내용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확인할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선택과목 경제와 AP경제의 목표 및 내용의 차이를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경제적 태도를 측정하는 문헌들을 바탕으로 시장에 대한 태도를 무엇으로 측정할 것인지 알아보고, 입시 위주의 교육 현실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1. 경제교육의 목표와 내용

(1) 경제교육의 목표

경제교육은 사회과의 내용 영역의 하나로서 다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경제교육 자체의 목적과 내용, 방법을 가지고 있으면서 동시에 사회과 교과가 추구하는 교육적 목적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 사회과목의 하나로서 경제교육의 목표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있다.

김정호(1993)는 '경제에 대한 능력을 바탕으로 해서 궁극적으로 전인으

로서의 민주 시민 육성'을 경제교육의 목표로 파악하였다. 경제적 능력이란 경제 원리와 현실경제에 대한 지식, 경제생활에 필요한 기능, 공공복리를 위할 수 있는 가치, 태도, 신념 등을 의미한다. 김진영, 박형준(2004)은 다양한 경제교육의 목표를 정리하여 다음의 세 가지로 요약한다. 첫째, 경제 현상을 지배하는 개념, 경제 원리나 법칙의 이해 증진을 목표로 하며, 둘째, 당면한 경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합리적인 의사 결정 능력을 배양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경제 발전과 복지 사회 건설에 참여하는 태도나 가치관의 함양이다. 조영달(2010)은 경제교육은 시민교육이며 경제교육의 목적은 경제현상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하여 합리적으로 의사 결정하는 책임 있는 민주시민을 양성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한편, 경제적 이해력(Economic Literacy)⁶⁾을 경제교육의 중요한 목표로 설정하기도 한다. 이소연(2012: 14-15)은 시민교육으로서 경제교육의 목표는 학생들의 경제적 리터러시를 함양시키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학생들은 경제 개념 및 원리 등과 같은 내용들을 배워야만 하고, 이를 통해 지식을 문제에 적용하는 방법을 알아야 한다. 이러한 능력의 습득은 궁극적으로 학생들이 문제에 대한 의사결정이나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데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경제적 리터러시라고 하고 있다. 경제적 리터러시의 함양은 학생들을 더욱 책임감 있는 시민으로 만들어 주며, 시민으로서 사회에 더욱 효과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이끌어 준다. 경제적 리터러시의 개념을 통해 우리가 속한 세상에서 경제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세상을 이해하고 효과적으로 행동하기 위해 경제교육이 필요함을 피력한다.

학자들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으나, 논의를 종합해보면 경제교육은 경제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하되, 경제 현상을 파악하고 미래를 예측하는데

6) 경제적 리터러시가 무엇인가에 대한 정의는 학자마다 조금씩 다르다. 이소연(2012: 14)은 다양한 관점을 종합하여 경제 개념과 원리를 배우고 이를 통해 새로운 문제를 분석하며, 나아가 주어진 문제에 대한 의사결정이나 판단을 하는 일련의 과정이 경제적 리터러시라고 하고 있다.

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사회발전에 이바지하는 합리적인 시민을 양성하는데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본 연구는 경제학적 지식과 이론을 전달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경제학 교육과 사회과의 시민교육으로서의 경제 교육의 차이를 확인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경제적 이해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민주시민을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한 조영달(2010)의 논의를 경제학 교육과 차별화 된 경제교육의 목표로 받아들인다.

시민교육으로서 경제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교육과정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⁷⁾ 교육과정은 교과목의 목표를 담고 있으며, 교과서와 교사들의 수업도 교육과정을 기본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⁸⁾ 7차 교육과정 개발 과정에서 경제교육에 대하여 강조한 목표는 다음과 같다(김정호, 1997). 우선, 시장 경제의 이념과 운용 과정의 이해를 강조하였다. 시장 경제는 가격 기구를 신호등으로 하여 이윤동기에 따른 자유 선택과 경쟁으로 유지된다. 따라서 학습자는 가격기능, 이윤 등의 개념을 바르게 인식해야 한다. 예를 들어 기업의 이윤 추구를 부정적으로 보게 되면 기업 활동은 위축될 수밖에 없으므로 이윤에 대한 잘못된 개념을 바로 잡아야 한다. 또한 시장 경제 체제에 맞도록 경제주체의 선택의 자유를 보장하여 창의성을 살리고, 공정한 경쟁과 선택 결과에 대한 책임을 분명하게 인식하도록 해야 한다. 다음으로 현실 경제 문제 인식 및 합리적인 해결 방법을 탐구해야 한다. 민주 시민 양성을 추구하는 사회과 교육은 현실 문제를 다루어야 한다. 경제 이론을 현실과 연관성 없이 맹목적으로 배울 수는 없다. 따라서 경제교육의 내용

7) 7차 교육과정은 2007년과 2011년에 개정되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7차 교육과정의 기본 방향과 목표는 유지하면서 부분적인 수정을 한 것이며, 본 연구의 대상이 되는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은 7차 교육과정을 이수하였으므로, 방향과 목표에 있어서는 7차 교육과정을 기본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8) 교사들은 교육과정을 그대로 전달할 수도 있고, 교육과정을 재조직하여 전달하거나, 교육과정 자체의 재·개정에 참여하고 재구조화할 수도 있다(차경수, 모경환, 2009). 교육과정과 어떠한 관계를 맺더라도 수업은 교육과정을 가장 기본으로 하게 된다.

은 실생활 소재를 활용하는 문제 해결 과정으로 구성해야 한다. 즉 우리 현실 경제를 이해하고 경제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는 교육이 필요하다. 학생들이 경험할 수 있는 사례를 소재로 하고, 현상 이해와 문제 해결에 필요한 개념과 이론을 가르치되, 학습자 수준에 맞추어야 한다.

경제교육 내용 구성의 방향은 경제 현상의 인식에 대한 기초과정의 안내, 민간 경제 단위(미시), 국민 경제 단위(거시), 국제 경제 단위로 확장시켜 나가도록 구성되어 있다. 경제교육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제기되어 온 과도한 내용을 축소하고 학습해야 될 수준을 적절하게 조절하여, 대량의 단편적 지식을 무의미하게 학습하는 대신, 중요 내용을 심도 있게 학습할 수 있도록 하는 학습의 경제성을 고려해야 된다. 또한 경제교육 목표에 기여할 수 있는 지식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 모든 지식은 그 자체로써 가치가 있지만, 보통 교육 수준에서는 사회 현상 이해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정도로 지식 내용을 제한해야 한다. 예를 들면 기업 이윤의 극대화 원리는 매우 정밀하지만 지나치게 추상적인 논리로 흘러서 보통 교육 수준에서는 난해하며 동시에 경제 현실을 이해하는 데에도 실용성이 적다. 오히려 그 원리보다는 기업 경영의 혁신이나 기업 윤리 등이 현실적으로 더 중요한 내용 요소라고 할 수 있다(김정호, 2002). 앞서 경제학 교육으로서의 경제교육에 대비해서 경제교육은 고유한 목적이 있으므로, 그러한 목적에 맞는 내용 지식이 선택되고 구성된다. 같은 기업이나 소비자에 관한 이론이라고 하더라도 교육적 의도를 가지고 재구성해야 하므로 학생들에게 교육되는 내용이 다르다고 볼 수 있다.

심화 선택과목 경제의 내용 체계를 보면 <표 5>와 같다.⁹⁾

9) 연구의 대상이 되는 학년은 고등학교 3학년으로 7차 교육과정 선택과목 경제를 배우고 있다.

< 표 1 > 선택과목 경제 내용 체계
(7차 교육과정 심화 선택과목 경제)

영역	내용 요소
경제생활의 이해와 경제 문제 해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희소성, 기회비용 - 경제문제, 비용 편익 - 한계 분석 - 시장경제, 계획경제 - 헌법의 경제 조항 - 경제의식과 이상적인 경제 질서
시장과 경제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요, 공급 - 수요의 변화와 수요량의 변화 - 공급의 변화와 공급량의 변화 - 시장 균형, 탄력성, 투기 - 시장실패, 정부개입, 정부실패
경제주체의 합리적 선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득, 소비, 저축, 자산, 이자율 - 합리적 소비 : 비용-편익 분석, 소비의 외부 효과 - 합리적 기업 경영 : 기업가 정신, 이윤, 기업의 이해 관계자, 기업 윤리 - 정부 재정의 기능과 구조
국민경제의 활동과 경제 변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제 순환, 총수요, 총공급, GDP - 경기변동 : 인플레이션, 스테그플레이션, 실업 - 재정정책, 금융정책 - 경제성장률, 물가지수, 실업률, 소득분배
세계시장과 한국경제의 미래 전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의 무역구조, 시장 개방, 비교우위, 환율, 국제수지, 국제경쟁력 - 한국 경제의 미래 - 인류공동체의 경제 문제 : 무역 마찰, 환경오염, 금융위기 등

(2) 경제교육의 내용

경제교육의 목표는 자연스럽게 경제교육의 내용에 대한 논의로 이어지게 된다. 결국 경제교육은 교육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목표가 달성되기 위해서는 경제 교과에서 무엇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에 대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김정호(1993)는 경제적 가치, 태도, 신념이라는 경제교육 목표의 달성을 위해서는 경제윤리교육이 구체적으로 실시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고 이를 구체화할 경제윤리교육의 내용 선정을 위한 기초적인 논의를 전개하였다. 김진영(1994)은 경제교육에 관련된 전반적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가운데 내용 구성과 관련하여서는 경제학 고유의 개념제시와 방법을 따르되, 이를 적용한 실생활의 사례를 더 많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최병모(2004)는 경제교육의 내용이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를 중심으로 두 가지의 유형으로 나누었다. 첫 번째는 경제교육의 내용이 학생들의 경험과 관련된 문제 중심으로 구성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경험주의 교육과의 지지를 받고 있는 것으로서, 교육 내용은 시민교육의 주체자가 일상적인 경험 속에서 만나는 문제들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스스로 사고하지 않을 수 없고, 그 사고과정을 통하여 교육의 효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선정되어야 한다는 논리이다. 시민 교육이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의 경험과 문제들을 교육내용으로 선정해야 한다는 논리는, 현명한 시민 생활에 필요한 문제 해결 능력을 길러야 한다는 현실적인 유용성에 출발하고 있으며, 현실적 유용성을 가진 지식만이 시민 교육의 진리가 될 수 있고 그러한 진리는 현실적인 문제 해결 과정에서 사고 과정을 통하여 획득된다고 보는 것이다.

두 번째는 경제교육의 내용이 경제학 중심으로 되어야 한다는 입장으로서, 학문중심 교육과정과 관계가 깊다. 이 견해는 경제학의 개념, 법칙, 원리 등을 체계적으로 학습함으로써 경제학적 지식을 이해하고 개념에서

법칙이 성립되기까지의 과정을 이해함으로써 경제학적인 사고력을 형성하여 경제적 문제에 대해 합리적으로 의사결정 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입장에서는 경제학의 구조화와 경제교육에서 다뤄야 하는 주요 개념들의 추출, 그리고 경제적 추론 능력의 육성에 초점을 맞춘다.

< 표 2 > 경제 내용에 따른 유형의 분류

	경제 문제 중심	경제학적 지식 중심
관련 교육 사조	경험중심 교육과정	학문중심 교육과정
목표	경제문제에 대한 합리적 문제 해결력 육성	작은 경제학자 경제학적 추론 능력
내용	구체적, 경험적 경제문제	경제학적 사실, 개념, 이론, 법칙 및 경제학적 추론방법
주요 방법	학생의 구체적 행동 경험 탐구 활동	학생의 탐구 활동 교사의 강의 및 설명

조영달(1991)은 경제교육에서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에 대한 물음에 몇 가지 점을 고려하였다. 첫째, 학문중심의 교육과정이란 아동의 자발적인 탐구를 통한 지식의 이해를 강조한다는 점에서 경험중심 교육과정의 개념을 보다 엄밀하게 구조화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두 번째, 학생 경험의 정의적 요소도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세 번째, 인지적 측면에 있어서 지식의 구조를 가르친다는 점에서 지식 그 자체와 함께 방법을 가르친다는 것이다. 이러한 생각들을 정리하면, 기본적인 경제지식과 함께 경제학적인 방법론을 가르쳐야 하며, 이것은 인지적 측면에서 경제학적 사고방법을 형성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정의적 측면에서 경제학적 사고방법과 경제논리를 기반으로 하여 민주주의 하의 자본주의 사회의 경제의식이 형성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경제의식을 가지고서 개인의, 또는 공공의 경제문제를 해결해 나갈 때, 이는 곧 민주시민으로

서의 역할을 행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논의를 토대로 할 때 경제교육에서 경제학은 공공의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할 줄 아는 시민을 양성하기 위해 필요한 요소들 중 한 가지라고 할 수 있다.

경제교육의 내용에 대한 지속적인 논의가 이어져 왔음에도 불구하고, 강조되어야 할 점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여전히 학자들 간의 의견 차가 존재한다. 경제교육의 내용이 사유 재산 제도, 자유로운 선택과 영리 추구, 경쟁 시장의 원리 등을 강조해야 할지, 아니면 시장 경제 원리 위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나 경제 윤리를 강조해야 할지에 대해서는 경제교육 관련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의 일치를 보지 못하고 있다. 한쪽은 ‘작은 경제학자’, ‘신고전파 이론체계’에 경도된 경제 교과를 바로잡기 위해 ‘경제교육’과 ‘경제학 교육’의 차별화를 주장하는 한편, 다른 쪽은 경제학의 출발점인 자유주의와 시장 원리에 충실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김진영, 박형준, 2004: 31-32). 경제교육은 책임 있는 민주시민으로서 일상생활에서 마주하는 경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 및 의사결정 능력을 함양하는 것이 목적이며, 이러한 점에서 사회과 교과와 일부로서 존재한다. 민주 시민으로서 경제적으로 합리적이고 올바른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경제 영역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회적 사실이나 가치에 대한 이해가 수반되어야 하므로, 경제학 그 자체에 집중하는 것은 경제교육의 본래 목적과는 맞지 않는다고 본다(김경모, 2004). 시민은 합리적인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는 경제주체일 뿐만 아니라, 사회구성원으로서 정치나 법, 문화 등의 영향을 받고 살아가기 때문에 단순히 경제 이론과 개념을 중심으로 학습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 본 연구 역시 경제교육의 내용에 대한 이러한 관점을 받아들이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설정하였다.

2. AP 경제의 목표와 내용

(1) AP 경제학의 목표¹⁰⁾

AP 경제학은 미국의 AP 프로그램(Advanced Placement program : 대학 학점 선(先)이수제)의 여러 과목 중 한 과목으로, 미시경제학(microeconomics)과 거시경제학(macroeconomics)으로 구성되어있다. AP 프로그램은 고등학생들이 대학 수준의 학문적 지식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목적이다. 따라서 AP프로그램들의 여러 과목들은 내용 선정, 평가 등의 영역에서 대학의 교수들이 직접 관여한다. 예를 들어 AP경제학의 경우 AP 수업을 가르치고자 하는 교사가 강의 계획서(course syllabus)를 제출하면 대학 수준의 교육과정과 수준, 필요 내용을 모두 다루는지를 확인한 다음 가르칠 자격(course audit)을 부여한다. 교사는 본인이 제출한 교육과정에 따라서 수업을 진행하게 된다.

AP경제학은 대학에서 1학기의 경제학 원론과 거의 같은 내용과 수준으로 진행된다. 따라서 이 수업을 수강하고 일정 점수를 획득한 학생들은 대학에서 경제학원론 수업이 면제 된다.¹¹⁾ 매년 5월에 미국 칼리지보드(college board)에서 시행하는 AP test의 경제문제는 경제원론 수준의 지식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측정한다. 상당수의 미국 대학들은 학생들이 AP경제학에서 일정 점수 이상을 획득하면 경제원론 과정을 이수한 것과 같다고 여기기 때문에 결국 AP경제학 수업은 대학의 경제학 원론 수업과 같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AP경제학은 주류 경제학의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목표이다. 높은 단계의 경제학을 배우기 위해 경제학의 기본 원리를 배우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10) College board(2011)의 AP economics course description을 참조하였다.

11) 1점 ~ 5점을 획득할 수 있다. 5점을 받은 학생들은 대학의 경제학 원론에서 A를 받은 것으로 간주된다. 4점의 경우 A-, B+, 또는 B로 인정되며, 3점은 B-, C+, C를 받은 수준으로 본다(College board, 2011)

(2) AP 경제학의 내용

AP 경제학은 한 학기 분량의 대학 경제학 원론의 내용을 배우는 것을 목표로 한다. 평가 시험도 대학에서 경제학 원론 수준의 문제로 구성된다. 앞서 언급했듯이 AP 경제학을 주관하는 College board에서는 AP 경제학 과목의 목적을 학생들에게 미시 경제학과 거시 경제학의 일반적인 내용과 동등한 수준의 경험을 제공하는데 있음을 적시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시장 경제 체제 하에서 소비자와 생산자로서 경제학 원리의 이해를 토대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아래는 AP 경제학의 내용과 구조를 정리한 것이다.¹²⁾

< 표 3 > AP 경제학 내용 체계

AP Microeconomics (미시 경제학)	AP Macroeconomics (거시 경제학)
1. 기본 경제 개념 (1) 희소성, 선택, 기회비용 (2) 생산 가능 곡선 (3) 비교우위, 절대우위, 특화와 무역 (4) 경제 체제 (5) 재산권과 유인 동기 (6) 한계 분석(Marginal analysis)	1. 기본 경제 개념 (1) 희소성, 선택, 기회비용 (2) 생산 가능 곡선 (3) 비교우위, 절대우위, 특화와 무역 (4) 수요 공급과 시장 균형 (5) 거시경제학의 이슈들
2. 생산물 시장의 특징과 기능 (1) 수요와 공급 ① 시장 균형 ② 수요와 공급의 결정 요인 ③ 가격과 수량의 조정 ④ 탄력성 ⑤ 소비자 잉여, 생산자 잉여, 시장의 효율성	2. 경제의 측정 (1) 국민 소득: GDP 관련 (2) 물가의 측정과 조정 (3) 실업
	3. 국민 소득과 물가의 결정 (1) 총수요 ① 총수요의 결정요인 ② 승수효과와 구축효과

12) college board(2011)에서 발췌.

<p>⑥ 조세의 전가와 귀착, 자증 손실 (deadweight loss)</p> <p>(2) 소비자 선택 이론</p> <p>① 총효용과 한계효용</p> <p>② 효용 극대화 이론</p> <p>③ 개인과 사회 전체의 수요 곡선</p> <p>④ 대체 효과와 소득 효과</p> <p>(3) 생산과 비용</p> <p>① 생산 함수 : 단기와 장기</p> <p>② 한계 생산과 한계 생산 체감의 법칙</p> <p>③ 단기 비용</p> <p>④ 장기 비용과 규모의 경제</p> <p>⑤ 비용 극소화</p> <p>(4) 기업 행동과 시장 조직</p> <p>① 이윤 : 각종 비용, 정상 이윤, 이윤극대화 원리 $MR = MC$</p> <p>② 완전 경쟁 시장 : 이윤 극대화, 장단기 분석</p> <p>③ 독점 시장 : 이윤 극대화, 가격 차별, 자연 독점</p> <p>④ 과점 시장 : 상호 의존성, 담합과 카르텔, 게임 이론</p> <p>(5) 독점적 경쟁 시장</p> <p>3. 요소 시장</p> <p>(1) 파생 수요</p> <p>(2) 한계 수입 생산 (Marginal revenue product)</p> <p>(3) 노동 시장</p> <p>(4) 소득 분배</p> <p>4. 시장의 실패와 정부의 역할</p>	<p>(2) 총공급</p> <p>① 단기와 장기 분석</p> <p>② 임금 경직성과 물가</p> <p>③ 총공급의 결정요인</p> <p>(3) 거시경제의 균형</p> <p>① 실질 총생산과 물가</p> <p>② 장단기 분석</p> <p>③ 완전 고용 생산량</p> <p>④ 경기 변동</p> <p>4. 금융 부분</p> <p>① 화폐, 은행과 금융 시장 : 화폐, 채권, 주식, 화폐의 수요와 공급, 대부자금시장 등</p> <p>② 중앙은행과 화폐 공급 : 화폐수량설, 명목 이자율과 실질 이자율 등</p> <p>5. 인플레이션, 실업과 안정화 정책</p> <p>① 재정 정책과 금융 정책</p> <p>② 인플레이션과 실업 : 인플레이션의 종류, 수요 견인 및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 등</p> <p>③ 필립스 커브 : 장기와 단기</p> <p>④ '기대(expectation)'의 역할</p> <p>6. 경제 성장과 생산성</p> <p>(1) 인적자본</p> <p>(2) 실물자본</p> <p>(3) 연구와 개발 그리고 기술 발전</p> <p>(4) 성장 정책</p> <p>7. 개방 경제 : 국제 경제와 금융 시장</p> <p>(1) 국제 수지</p> <p>① 국제 수지 균형</p>
---	---

(1) 외부성	② 경상 수지
(2) 공공재	③ 자본 수지
(3) 정부 정책	(2) 외환 시장
(4) 소득 분배	(3) 순수출과 자본의 흐름
	(4) 금융시장과 실물시장의 관계

<표 3>에서 볼 수 있듯이 AP 경제학의 내용 구조는 일반적인 경제학 원론의 내용 구성을 그대로 따르고 있다. 따라서 AP 경제학을 수강하는 학생들은 경제 원론에 나와 있는 경제 이론들을 그대로 배우는 것과 다르지 않다. 철저하게 경제 지식과 개념을 전달하고 이를 토대로 문제를 해결하고 경제학적 사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고, 경제적 가치나 태도, 윤리적 문제 등은 다루지는 않는다. 미시 단원에서 소득 분배(income distribution)를 다루는 단원이 있지만, 로렌츠 커브의 의미, 지니계수 구하는 방법과 그 의미 등을 설명하고 문제를 풀 수 있게 하는 정도이다. 또한 경제학 전반에 대한 이해의 틀을 형성하는데 집중하여, 현실이나 일상생활과의 연관성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다. 일례로 소비자 선택이론에서 합리적 선택에 대한 설명을 할 때 비용과 편익을 중심으로 하면서, 단위 화폐 당 같은 효용을 줄 때 소비자의 만족감이 극대화 된다는 것을 기계적으로 설명한다. 시험에서도 수치가 주어지면 값을 계산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문항이 주를 이룬다. 기업의 생산 활동과 관련하여서도 한계 비용(marginal cost), 한계 수입(marginal revenue), 평균 수입(average revenue), 평균 총비용(average total cost) 등의 기본 개념과 손익 분기점(break-even point), 생산중단점(shutdown point) 등에 대한 설명을 바탕으로 기업이 언제 어떻게 생산하며, 생산 지점에서의 이윤은 얼마인지를 계산해내는데 집중하고 있다. 더불어 AP미시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는 부분이 기업의 행동, 시장이론인데, 선택과목 경제에서는 그 비중이 매우 작다.¹³⁾ 학생들의 일상생활 경험과 상관없이 경제

13) College board의 공식 문서에 따르면 시장의 구조와 기업의 행동(market structure and firm's behavior)에서 25~35% 정도가 출제된다.

학의 이론을 그대로 가르치는 것이 목적이므로 당연한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AP 경제학을 배우는 학생들은 경제학 그 자체를 배우는 것이라고 할 수 있으며, 시민교육을 지향하는 경제교육과는 지향점이 다르다.

3. 시장에 대한 태도

(1) 경제적 태도에 대한 선행 연구

경제교육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경제 문제나 경제학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이나 태도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었다. 하지만 경제현상이나 문제 또는 경제학 자체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을 조사하는데 그치고 있어, 실제 수업 현장에서 경제교육이 학생들에게 어떠한 태도변화를 가져오는지에 대한 논의는 부족한 상황이다.

Schug와 Walstad(1991)는 경제적 태도의 발달은 경제교육의 오랜 관심분야라고 밝힌바 있다. 이들은 기존의 연구를 요약하여 ‘경제에 대한 이해는 학생들의 경제체제에 대한 태도와 경제적 이슈를 평가하는 수준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결론을 내렸다(Miller & VanFossen, 2008: 292 재인용). 한경동(2008)은 경제교육과 경제문제에 대한 고등학생들의 인식을 조사하였다. 경제교육을 받은 학생들을 상대로 실업이나 양극화, 합리적인 소비, 노사문제, 물가 등에 대한 질문을 하고 경제교육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며 경제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을 확인하였고, 학생들의 인식에 영향을 미친 요인들을 분석하였다. 장경호와 한경동(2010)은 고교생 경제한마당에 응시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경제학에 대해서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를 연구하였다. 설문지로는

Walstad와 Soper(1989)의 ‘경제학에 대한 태도(ATE: Attitudes Toward Economics)¹⁴⁾’ 활용하였다. 연구를 통해 성적이 높을수록, 부모의 학력 수준과 가계 소득이 높을수록, 사교육비 지출이 많을수록 경제학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인 것으로 드러났다. 최병모, 김정호, 허인숙(2004)은 연구를 통해 학생들의 경제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세계화, 지식기반경제시대에 경제교육의 방안을 탐구하였다. 연구자들은 학생들의 경제의식을 소비생활영역, 직업생활영역, 정보소양영역, 글로벌소양영역으로 나누어 직접 개발한 설문지를 바탕으로 학생들이 경제에 대해서 어떠한 인식을 가지고 있는지를 확인하였다. 한 편 경제관련 연구소나 단체 등에서도 다양한 방식으로 학생들의 경제인식 및 태도에 관한 연구가 실시되었다(전국경제인연합회, 2003; 최호상, 2003).

하지만 대부분의 연구들이 학생들이 경제학 또는 경제 현상 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질문하고 이에 대해서 분석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또한 교사나 학생들의 단편적인 인식에만 초점을 두어 이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응방안을 내는 데에만 치중하고 있다. 경제교육에 의해서 학생들이 경제학 또는 경제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게 되었으며, 왜 그런지에 대한 실증적인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본 연구는 교실 내에서 일어나는 교육 현상에 초점을 맞추고 경제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학생들의 시장에 대한 태도가 어떻게 변화하는지에 관심을 가진다.

경제적 태도를 확인하는데 자주 사용되는 ATE(Attitudes Toward Economics)에서 보다 높은 점수가 나온 경우 경제 수업의 의도된 결과일 수 있으나, 평균보다 낮은 점수가 나왔다고 해서 나쁘거나 옳지 않음

14) 학생들의 태도에 대한 측정에는 Survey on Economic Attitudes(SEA)가 일반적으로 사용되어 왔다. SEA는 경제교육의 결과로서 학생들의 태도를 측정하기 위해 두 가지 정의적인 영역을 포함하도록 개발되었다. SEA는 경제교과에 대한 태도(ATE : Attitudes Toward Economics)측면과 경제적 태도 발달(EAS : Economic Attitude Sophistication)의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Phipps and Clark, 1993).

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ATE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경제학에 대한 학생들의 의견 또는 태도이다. 본 연구에서 시장에 대한 태도를 측정하는데 사용되는 EAS(Economic Attitude Sophistication)역시 학생들의 경제적 이슈에 대한 의견이 옳지 않다거나, 경제학자들의 합의된 관점들을 받아들이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다. 학생들이 현재 가지고 있는 경제적 지식들을 바탕으로 그들의 의견이 형성되어 있는가를 측정한다(Walstad and Soper, 1983). 즉, EAS는 경제 수업의 효과성을 검증하거나 태도 변화를 측정하고자 하는 도구가 아니다.

아직까지 적절한 측정도구가 없기 때문에 경제 수업이 학생에게 미치는 영향을 사전·사후 검사나, 집단 간 비교를 통해서 검증한 연구는 거의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하고자 하는 경제교육을 받은 학생들과 경제학 교육을 받은 학생들의 시장에 대한 태도, 즉 경제적 태도를 정확하게 비교할 만한 도구는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동일한 경제학적 지식을 담고는 있지만, 그 목표와 내용이 다른 두 수업을 수강한 학생들이 가지는 지식의 내용은 다를 것이며 경제적 이슈에 대한 의견도 다르게 형성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EAS의 내용을 상황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하고자 한다. 경제적 태도 변화를 보다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측정도구의 개발과, 그러한 도구를 활용한 경제교육의 효과성 검증은 후속 연구에 맡긴다.

(2) 시장에 대한 태도 측정

본 연구는 1979년 미국의 JCEE(Joint Council on Economics Education)에서 개발한 ‘경제학에 대한 태도(Survey on Economic Attitude)’중에서 ‘전문 경제학자들이 이론적으로 합의한 내용에 동의하는 정도’를 측정하는 경제적 태도 발달과 관련된 설문지인

EAS(Economic Attitude Sophistication)을 재구성하여 사용한다.

Attitude Sophistication은 현재의 지식과 의견이 일치하는 정도를 의미한다. 경제학자들마다 경제적 목적과 방법은 다를 수 있지만, 모든 경제학자들이 동의하는 지식은 존재한다. 따라서 이러한 지식을 학생들에게 가르치면 자유주의, 보수주의와 같은 이데올로기와 상관없이 유사한 의견을 가지거나 비슷한 결론에 이르게 될 것이다. 예를 들어 ‘국방비 지출이 없다면 미국 경제는 크게 성장하게 될 것이다.’라는 물음에는 자유주의 경제학자든 보수주의 경제학자든 동의하게 된다(Mann and Fushfeld, 1970: 112). 물론 국방비 지출이 경제성장을 이루는 과정에 대한 설명은 다를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Economic Attitude Sophistication은 경제학자들이 합의한 지식과 학생들의 의견이 합치하는 정도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전문 경제학자들이 동의한 경제적 내용을 배운 학생들은 특정한 질문들에 대해서 유사한 의견을 가지거나 결론을 낼 것이다. 따라서 AP경제학을 배운 학생들은 전문 경제학자들이 동의한 지식들을 습득하게 되고, 몇 가지 질문들에 대한 답도 경제 전문가들의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아래의 표는 EAS의 신뢰도 테스트를 위한 조사에서 경제 전문가들이 응답한 내용이다. 두 가지 질문을 제외하고는 모든 영역에 걸쳐 동의하지 않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표 4 > 경제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¹⁵⁾

번호	질문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경제학과 개인금융	① 사람들은 세금을 납부할 필요가 없다.	0	95.3
	② 모든 사람들에게 의료서비스는 무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10.8	77.7
	③ 은행은 돈을 빌려간 사람들에게 이자를 받아서는 안 된다.	0	99.3
	④ 사람들은 돈이 많아지면 더욱 행복해질 것이다.	2.0	88.6
	⑤ 인플레이션은 욕심 많은 기업가들에 의해 발생한다.	4.7	85.2
고용과 관련된 문제	⑥ 직업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은 대부분 게으를 것이다.	3.4	89.9
	⑦ 실업자들은 대부분 게으르다.	4.7	91.3
경제와 정부의 역할	⑧ 정부가 직접 석유가격을 조절해야 한다.	5.4	89.3
	⑨ 파업이 일어나면 정부가 나서서 분쟁을 조정해야 한다.	3.4	72.3
	⑩ 기업이 커지면, 정부가 관리해야 한다.	7.4	73.8
경제적 자유	⑪ 사람들은 그들의 돈을 자유롭게 쓸 수 있어야 한다.	85.9	8.7
	⑫ 기업들은 지나치게 많은 이윤을 얻고 있다.	4.7	85.2
	⑬ 기업의 이윤에 대해 정부가 관여해서는 안 된다.	70.3	15.5

그러나 경제 교육은 경제학만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다. 경제 교육에서 가르쳐야 할 내용들을 동의하는 학자들은 경제학자들만이 아니다. 경제적 지식이나 내용에 대해서는 경제학 전공자들이 선별할 수는 있겠으나, 어떤 내용들을 어떤 방식으로 가르쳐야 할지에 대해서는 교육 전문가들

15) EAS도구의 타당성을 확인하기 위해 미국 Purdue university measurement research center(MRC)에서 실시한 조사 중 일부이다.

의 합의가 필요하다. 사회과 교육의 일환으로서 경제교육은 시민성 함양이 핵심 목적이 될 것이며, 이것은 경제학 교육의 목표와는 거리가 멀다. 따라서 경제 교육의 측면에서 EAS는 경제학 교육에서의 EAS와는 달라야 한다. 목적이 다르고 내용이 다르므로 전문가들이 합의한 내용 역시 차이가 발생할 것이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 시장에 대한 태도 차이를 보는 것은 이러한 이유 때문이며, EAS가 그 기준이 될 것이다.

(3) 경제적 시민성

경제 교육을 받은 학생들은 경제학 교육을 받은 학생들과 어떤 면에서 차이를 보이게 될 것인가? 특정 교과나 그 하위 영역을 통해 가르쳐지는 내용들의 의의는 그 교과의 교육 목표와 관련하여 얼마나 그 적절성을 유지할 수 있는가에 달려있다. 이런 점에서 보면 학교 경제교육의 적절성은 사회과 교육 전체의 교육 목표인 ‘시민성 함양’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냐가 핵심이 된다(김경모, 1996: 44). 따라서 경제 교육을 받은 학생들과 경제학 교육을 받은 학생들이 어떠한 차이를 보인다면 그 핵심은 시민성과 관련되어 있다. 전창완(2004)는 경제 교육에서 강조되어야 할 경제적 시민성을 연구하면서 경제적 시민성을 3가지의 구성요소로 구분하였다. 첫 번째는 인지적 요소로써 ‘시장 경제의 보편적 운동 원리와 역사성의 인식’이다. 이 영역에서는 시장 경제의 이념에 대한 이해, 경제학적 지식과 탐구 방법 등을 이해시키는 것이 핵심이다. 두 번째, 정의적 요소에서는 ‘시장 경제의 가치 지향’이다. 그는 주자문(1993), 조영달(1997), 김경모(1998)의 논의를 정리하여 정의적 요소는 공동체 의식, 사회 정의, 경제 윤리, 사회적 목표와 가치, 사회적으로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 가치의 수용 능력 등을 포함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마지막으로 기능적 요소는 ‘미래의 시장 구조와 경제 환경 변화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는 것으로 경제 변동에 대응하는 능력, 정보

능력, 의사 결정 능력, 경제 문제에 대한 이해와 판단 능력 등으로 정리하고 있다.

경제적 시민성의 구성요소에서 본 연구에서 주목하고자 하는 부분은 정의적 요소와 관련되어 있다. 경제학 교육은 공동체나 사회적 가치와 목표, 경제 윤리 측면은 거의 다루지 않기 때문에 경제 교육이 제대로 기능하고 있다면, 정의적 요소와 관련하여서는 차이가 발견되어야 한다. 하지만 경제 교육을 받은 학생들의 정의적 영역의 변화와 관련된 연구가 거의 없으며, 관련한 설문지도 없는 상황이다. 경제적 태도 발달을 측정하는 EAS를 활용하여 간접적으로나마 학생들이 시장에 대해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정부의 역할이나 실업, 개인의 경제적 자유 등과 관련한 학생들의 태도를 측정하는 과정을 통해 학생들이 주류 경제학에 치중되어 있는지, 아니면 경제학적 지식을 토대로 하되, 공동체와 사회적 가치 등을 고려하는지를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다. 결국 경제 교육은 학생들에게 경제적 시민성을 함양하여야 하며, 경제교육이 그 목적을 온전히 달성하고 있다면 경제학 교육을 받은 학생들과 이러한 부분에서 차이가 나게 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경제적 시민성의 차이를 시장에 대한 태도로부터 확인하려고 한다.

예를 들어 경제에 정부가 개입하는 문제에 대해서 경제 전문가들은 상당히 부정적임을 <표 4>를 통해 알 수 있다. 하지만 선택과목 경제를 수강한 학생들은 상대적으로 경제 주체로서 정부의 순기능을 이해하고, 복지나 경제적 평등과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역할을 배우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정부의 역할에 대해 긍정적일 것이라는 것을 추론할 수 있다. 고용 문제에 있어서도 개인적 문제가 아닌 사회적 차원의 접근을 적극적으로 시도할 것이며, 개인 금융 문제나 경제적 자유 영역에 있어서도 경제학자들의 선택에 비해 동의하지 않는 정도가 낮을 것임을 예측할 수 있다.

4. 교실 안 경제교육의 현황

교육과정에 나타난 경제교육의 목표를 바탕으로 구성된 경제교육의 내용이 현장에서 잘 교육되고 있는지를 알아보는 것은 중요하다. 아무리 좋은 목표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 그러한 목표를 위한 수업이 현장에서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면, 이상과 현실의 괴리가 발생할 것이기 때문이다. 기존의 연구들을 토대로 본 장에서는 수업 현장에서 현실적으로 어떻게 경제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확인하려고 한다.

학교 밖에서의 경제에 대한 관심과는 반대로, 학교에서의 경제교육은 학생들 뿐 만 아니라 교사들로부터도 기피 대상으로 인식되고 있다. 고등학교 선택과목 경제를 선택하는 학생은 8만 명 정도로 11개 과목 중 6위에 머물고 있다(2010학년도 수능 기준). 연구에 의하면 학생들에게 경제 과목은 어렵고 힘든 과목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높은 수능 등급을 획득하기 어려운 현실적인 이유로 경제과목을 기피하고 있다. 교사들 역시 경제 과목을 어렵고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으며, 가장 가르치기 힘든 과목으로 인식하고 있다. 학교 경제교육의 가장 큰 문제점에 대한 질문에서 교사들은 ‘이론 위주 경제교육 내용(35.4%), 학생들의 낮은 흥미도(24.4%), 시험대비 경제교육(14.1%), 경제교육 수업 시간 부족(12.8%), 교수 학습 자료의 부족(6.%), 교사들의 경제교육 인식 부족(6.4%)’순으로 응답하였다(김진영, 박영석, 이민정, 2009: 15). ‘경제학 이론 위주의 경제교육’은 경제 과목을 현실에서 동떨어진 재미없는 과목으로 만들었으며, 경제 과목을 선택한 학생들도 수능에서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해 경제 개념과 사실들을 암기하고, 단순 적용하는데 집중하게 만들었다. 자연스럽게 학생들의 흥미와 집중력은 떨어지게 마련이며, 가르치는 교사들 입장에서도 지루하고 가르치기 어려운 과목이 될 수밖에 없다. 경제교육의 목표를 달성하게 위해 만들어진 내용 체계는 지식 영역과 가치, 태도 영역으로 나눌 수 있는데, 현실적으로 현장에서 가치와 태도 영역은 다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며, 지식의 영역만 집중적으로 다루어지고 있다.

김정호(1993)는 사회과 경제교육이 경제에 대한 능력을 바탕으로 해서 궁극적으로 전인으로서의 민주시민의 육성을 목표로 하면서도 우리의 경제교육은 경제학 이론과 개념, 원리, 법칙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러한 교육은 태도, 가치, 규범과 같은 정의적인 요소들을 학생들에게 내면화시키는 데에는 한계가 있음을 지적한 바 있다.

결국 현실적으로 교육과정에 나타난 내용 요소들 중에서 경제적 지식을 중점적으로 다룰 수 밖에 없다. 학생들이 경제적 지식을 얼마나 많이 암기하고 있으며, 그것을 토대로 객관식 문제를 얼마나 잘 해결하느냐가 경제 수업의 성패를 좌우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앞서 언급했던 시민교육으로서의 경제교육이 교육과정에 명시한 목표를 달성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기존의 연구들이 지적하는 경제교육의 문제점은 대부분 내용영역의 오류나 난이도, 또는 학자들 간에 합의하지 못하는 부분들에 대한 논의, 그리고 수업 시수나 교사들의 경제지식 수준 등에 대한 것들이다. 하지만 구체적인 수업에서 어떤 것들이 가르쳐지고 있는지에 대한 연구를 찾아보기는 힘들다. 모두가 합의하는 경제교육의 목표와 교육과정, 그에 따르는 교과서가 있다고 하더라도, 현행 입시 체제하에서 그것들이 온전히 제대로 학생들에게 전달되어 사회과에서 지향하는 시민이 되기를 바라는 것은 무리가 있다.¹⁶⁾ 경제적 지식을 전달하는데 치중하게 되는 현실에서 AP경제학을 배우는 것과 선택과목 경제를 배우는 것에서 큰 차이를 찾기는 어려울 것이며, 경제교육과 경제학 교육의 경계가 모호해질 수 있다.

16) 최병모, 박형준, 김경모, 황상주(2004)는 여러 가지 경제교육 교수·학습 모형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수업 현장에서 사용되지 못하는 이유 중 한 가지로 실제 경제생활과 유리된 입학시험을 위한 주입식 학습 방법을 언급하였다.

III. 연구 설계

본 장에서는 연구 문제와 연구 가설을 확인할 것이다. 그리고 가설을 확인하기 위해 사용되는 변인들의 개념을 확인하고 변인들의 관계를 측정할 수 있는 측정도구를 확인하고자 한다. 그리고 연구 대상 및 연구 방법을 기술할 것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연구 가설

본 연구는 경제 교과의 목표에 따라 학생들의 시장에 대한 태도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구체적으로 개인 금융 문제, 고용과 관련된 문제, 경제와 관련된 정부 역할의 문제, 그리고 경제적 자유와 관련된 문제에 두 집단 간 차이가 존재하는가에 주목하였다. 연구문제를 토대로 설정한 주가설과 하위가설은 다음과 같다.

연구 가설 : 선택과목 경제 수업을 수강한 학생들과 AP경제 수업을 수강한 학생들 사이에 시장에 대한 태도의 차이는 없을 것이다.

연구 가설을 뒷받침하기 위해 구성한 하위 가설은 다음과 같다.

1. 선택과목 경제 수업을 수강한 학생들과 AP경제 수업을 수강한 학생들 사이에 경제와 개인 금융에 대한 태도차이는 없을 것이다.
2. 선택과목 경제 수업을 수강한 학생들과 AP경제 수업을 수강한 학생들 사이에 고용에 대한 태도차이는 없을 것이다.
3. 선택과목 경제 수업을 수강한 학생들과 AP경제 수업을 수강한 학생

들 사이에 경제와 관련된 정부의 역할에 대한 태도차이는 없을 것이다.

4. 선택과목 경제 수업을 수강한 학생들과 AP경제 수업을 수강한 학생들 사이에 경제적 자유에 대한 태도차이는 없을 것이다.

앞서 살펴본 선행연구들과 학자들의 논의를 토대로 경제교육과 경제학 교육은 교육 목표와 의도가 전혀 다른 것임을 확인하였다. 또한 현행 입시제도 하에서 경제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고, 경제학적 지식과 이론을 가르치는데 치중하고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경제교육으로서 선택과목 경제를 수강한 학생들과 경제학 교육으로서 AP경제학을 수강한 학생들의 시장에 대한 태도 차이가 없을 것이라는 것을 기대하고 있다.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시민교육으로서의 경제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논의할 수 있고, 경제교육과 경제학 교육이 시장을 바라보는 학생들의 태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부가적으로 알 수 있다.

2. 연구 방법

(1) 사례연구

본 연구는 OO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사례 연구(case study)를 실시한다. 사례 연구는 현실에서 일어나는 사건에 대하여 연구자가 통제를 가하지 않으며, ‘어떻게’ 또는 ‘왜’의 문제가 제기될 때 활용할 수 있다(Yin, 2003). 이번 연구를 진행함에 있어 연구자가 특별한 통제를 가하지 않았으며 현행 경제교육이 학생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그리고 차이가 발생하는지에 대한 확인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사례 연구가 적합하다고 판단하여 시행하였다. 또한 Yin은 사례연구를 사용하기 위한

몇 가지 관점을 제시하고 있는데¹⁷⁾ 본 연구는 학교 수업 현장에서 직접 관찰한 내용을 토대로 하고 있으며, 연구자가 특정한 변수를 중심으로 실험을 설계한 것이 아니므로 사례 연구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사례 연구가 직면하는 가장 큰 비판은 일반화의 문제이다. 한 가지 또는 소수의 사례에서 도출된 결과를 일반화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그러나 사례연구는 실험과 마찬가지로 이론적 명제에 대한 일반화가 가능한 것이지 모집단을 대상으로 일반화하는 것이 아니다. 사례연구는 실험과 마찬가지로 ‘표본’을 대표하는 것이 아니다. 사례연구의 목적은 사건이 얼마나 많이 일어났는지 그 빈도를 조사하는 것이 아니라(통계적 일반화), 사례연구를 통하여 이론들을 확장, 일반화 하는 데에 있기 때문이다(분석적 일반화). 단일사례연구를 수행하였던 저명한 사회과학자들도 그들의 연구목적이 특수한 사례를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하는데 있다고 밝힌 바 있다.(Lipset et al., 1956: 419-420; Yin, 2003에서 재인용). 본 연구가 지향하는 바는 경제교육이 시민교육으로서 어떻게 제 기능을 다할 것인지에 대해 알아보는 것이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경제교육이 현재 어떻게 기능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본 연구를 통해서 알기는 어렵다. 그것은 이번 연구가 효과성을 검증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현상을 확인하는 지표 역할을 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일반화 자체가 어렵기도 하거니와, 통계적으로 큰 의미를 가지기 힘들다. 본 연구를 토대로 장기적으로는 경제교육을 받는 학생들에게 적용 가능한 도구들을 개발하여 일반화를 시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사례연구는 정량적 증거(quantitative)와 정성적 증거(qualitative) 모두

17) Yin은 다음과 같은 사례연구의 범위(사례연구를 정의하기 위한 한 가지 관점) 제시한다.

- ① 실생활에서 벌어지는 현재의 현상에 대해 조사하는 실증적인 연구이다.
- ② 현상과 정황 사이의 경계가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을 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다. (실험의 경우는 정황과 현상을 의도적으로 분리시킴으로써 몇 개의 변수에만 집중하도록 한다.)

를 포함할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정량적 증거만을 사용할 수도 있다. 흔히 사례 연구를 질적 연구와 동일시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례연구가 반드시 질적 연구가 가지는 특성을 모두 가지고 있을 필요는 없다. 사례연구는 정량적 증거나 정성적 증거, 또는 둘 모두를 사용할 수 있으며 사례연구라고 해서 반드시 증거 수집의 과정에서 항상 직접적이고 상세하게 관찰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의 구분에 관해서는 논쟁이 있어왔지만, 사례연구는 질적인 동시에 양적인, 일종의 종합적 성격의 연구이다(Yin, 2003). 본 연구는 두 개의 다른 경제 수업을 수강한 학생들에게서 발견되는 차이를 확인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자료의 수집과 분석에 있어서는 양적 연구를 시행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양적 자료를 바탕으로 하는 사례연구가 된다.

(2) 자료의 수집 및 분석

본 연구는 AP 경제학 과목을 수강한 학생들과 선택과목 경제 수업을 수강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시장에 대한 태도를 설문지를 통해 측정하고자 한다. 설문지는 Walstad와 Soper(1983, 1989)의 ‘경제학에 대한 태도(Survey on Economic Attitudes(SEA))를 활용하려고 한다. SEA는 ATE(Attitudes Toward Economics)와 EAS(Economic Attitudes Sophistication) 두 가지로 구성되는데, ATE는 경제학(또는 경제 교과)에 대한 태도를 측정하는 도구이며 EAS는 경제적 태도 발달의 측면을 측정하는 도구로써 학생들이 전문 경제학자들이 합의한 내용들에 대해 동의하는 정도를 알 수 있다.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EAS만을 활용할 것이며, 한국적 현실에 맞게 수정을 하여 사용하려고 한다. 설문조사를 통해 수집된 자료는 SPSS 프로그램으로 통계 처리할 것이며,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분석할 것이다.

첫째, AP 경제학을 수강한 학생들과 선택과목 경제를 수강한 학생들

이 하위 가설로 설정한 문제들에 대해서 태도 차이를 보이는지를 확인할 것이다.

두 번째, 하위 가설의 결과를 토대로 주 가설이 받아들여지는지 기각되는지를 확인할 것이다. 이를 토대로 본 연구가 경제교육에 주는 함의를 이끌어 내고자 한다.

더불어 결과의 분석에 학생들과의 면담 내용을 활용하고자 한다. 설문과 관련된 면담은 양적연구로부터 알아낸 것들을 설명하고 해석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설문 조사가 끝난 후 AP경제학만을 수강한 학생(학생 A)과 선택과목 경제만을 수강한 학생(학생 B), 그리고 선택과목 경제와 AP경제학 두 과목 모두를 수강한 학생(학생 C) 세 명을 면담하였다.

· 학생 A : A 학생은 해외 대학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들이 모인 국제진학반의 3학년 남학생이다. 1학년 때 AP microeconomics와 macroeconomics 모두 최고점인 5점을 받았으며 이과 학생이면서 경제학에 상당히 관심이 많다. 증권경시대회와 경제경시대회에서도 상위의 성적을 얻었을 정도로 실력을 갖추고 있으며, 내신 성적도 상위권이다. 인터뷰는 30분 정도 진행되었으며 녹음되었다.

· 학생 B : B학생은 국내 대학 진학을 희망하는 고등학교 3학년 남학생으로 상위권 성적을 유지하는 학생이다. 고등학교 2학년 때 선택과목 경제를 수강했으며, 현재는 국제 계열 과목에 경제가 없어 EBS교재로 수능 경제를 스스로 공부하고 있다. 학교에서 경제 동아리 장을 맡고 있으며, 경제 전공을 희망하고 있다. 인터뷰는 30분 정도 진행되었으며 녹음되었다.

· 학생 C : C학생은 국내 대학 진학을 희망하는 고등학교 3학년 여학생으로 경제경시대회에서 장려상을 수상하는 등 경제학에 관심이 매우 높은 학생이다. 고등학교 2학년 때 AP microeconomics와 macroeconomics

모두 5점을 획득하였으며, 선택과목 경제 수업도 수강하였다. 학생 B와 마찬가지로 현재 EBS교재를 활용하여 수능 경제에 대비하고 있다. 인터뷰는 30분 정도 진행되었으며 녹음되었다.

3. 연구 변인

(1) 종속 변인

본 연구는 AP 경제학 과목을 수강한 학생과 선택과목 경제 수업을 수강한 학생들의 시장에 대한 태도의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는 것이 목적 이므로, 측정하고자 하는 종속변수는 학생들의 시장에 대한 태도이다. 하 위 가설의 금융과 관련된 문제에 대한 태도, 고용과 관련된 문제에 대한 태도, 경제와 관련된 정부의 역할에 대한 태도, 경제적 자유에 대한 태도 가 각각 종속 변수가 된다.

(2) 독립 변인

독립 변인은 ‘선택과목 경제’와 ‘AP 경제학’ 수강 여부이다. 조사 대상 은 동일한 학교의 고등학교 3학년으로, 47명은 AP경제학 수업을, 48명은 선택과목 경제 수업만을 수강하였다. 국내 대학 진학을 희망하는 현재 고3학생들은 1학년 때 ‘사회’과목에서 경제 영역을 배우고 2학년 과정에서 심화선택 과목 경제 수업을 수강한다. 해외 대학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들의 경우 고등학교 1학년 때 AP경제학을 배우고 미국의 College

board에서 주관하는 시험을 치르게 된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 시험에서 4점을 이상을 획득한다. 한 편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때는 ‘국제 경제’라는 과목에서 경제 영역을 배우게 되는데 맨큐의 경제학 원론, 국제 경제학(김신행)을 교재로 사용하므로 경제학 교육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할 수 있다.

4. 연구 대상

연구의 대상이 되는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은 총 4개 반으로 이루어져있으며 2개 반(49명)은 국내 대학 진학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나머지 2개 반(48명)은 해외 대학 진학을 목표로 하는 반이다. 국내진학반 고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수업은 7차 교육과정을 따르고 있으며 고등학교 2학년 때 심화 선택과목 ‘경제’과목을 수강하였다. 수업의 진행은 주로 교과서를 활용하였으며, 참고서를 바탕으로 교사가 직접 만든 유인물과 EBS 교재를 사용하였다. 일주일에 수업 시수는 6시간이다.

국제진학반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은 국제 계열 과목을 이수하기 때문에 일반 인문계 학교와 선택 과목에 차이가 있다. 이 학생들은 선택과목 경제를 배우지 않고 AP 경제학 수업을 1학년 때 배운다. 교재로는 기본서로 맨큐의 경제학(Principle of economics)를 활용하고, 해외에서 발간된 AP문제집을 활용하였다. 해외 대학에서는 AP 과목 이수의 여부와 점수를 중요하게 여기므로 학생들에게는 국내 대학의 내신과 수능 점수에 동시에 영향을 미치는 것과 같은 효과가 있다. AP 미시경제학과 AP 거시경제학을 일주일에 각각 2시간씩, 총 4시간씩 수강하였다.

국내진학반 학생들은 AP 경제학을 수강하지 않았으며, 국제진학반 학생들은 선택과목 경제를 수강하지 않았으므로 두 집단 간 차이를 통해

본 연구의 목표로 하는 집단 간 차이를 관찰할 수 있다.

5. 조사 도구

경제적 태도에 대한 검사 도구는 1979년에 미국의 JCEE(Joint Council on Economic Education)에서 개발한 설문지를 활용할 것이다. Walstad 와 Soper의 연구에 따르면 ATE의 타당도와 신뢰도는 충분히 검증되어 있는 만큼 연구에 활용하는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국내에서 이루어졌던 학생들의 경제 현상에 대한 인식 조사, 경제학에 대한 태도, 경제 과목과 경제 문제 대한 인식 등에 폭넓게 사용되어 왔다. 다만, 몇 가지 설문 내용이 우리나라의 현실이나 경제 여건에 맞지 않아 이러한 부분은 재구성하여 사용하고자 한다. 각각의 척도는 Likert형 5점 척도로 구성하였다, 구체적인 설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표 5 > 학생들이 전문 경제학자들이 합의한 내용들에 대해
동의하는 정도**

번호	질문	응답				
		전혀 동의하 지 않음	동의하 지 않음	모르겠 음	동의함	매우 동의함
경제학과 개인금융	① 사람들은 세금을 납부할 필요가 없다.	①	②	③	④	⑤
	② 모든 사람들에게 의료서비스는 무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③ 은행은 돈을 빌려간 사람들에게 이자를 받아서는 안 된다.	①	②	③	④	⑤
	④ 사람들은 돈이 많아지면 더욱 행복해질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⑤ 인플레이션은 욕심 많은 기업가들에 의해 발생한다.	①	②	③	④	⑤
고용과 관련된 문제	⑥ 직업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은 대부분 게으를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⑦ 실업자들은 대부분 게으르다.	①	②	③	④	⑤
경제와 정부의 역할	⑧ 정부가 직접 석유가격을 조절해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⑨ 파업이 일어나면 정부가 나서서 분쟁을 조정해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⑩ 기업이 커지면, 정부가 관리해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경제적 자유	⑪ 사람들은 그들의 돈을 자유롭게 쓸 수 있어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⑫ 기업들은 지나치게 많은 이윤을 얻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⑬ 기업의 이윤에 대해 정부가 관여해서는 안 된다.	①	②	③	④	⑤

IV. 결과 분석 및 논의

1. 기술통계

본 연구는 선택과목 경제 수업을 수강한 학생들과 AP경제학 과목을 수강한 학생들 간에 시장에 대한 태도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설문지를 활용하여 두 집단 간 평균을 비교하고자 하였다. 집단 간 평균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서 t-test를 실시하였으며, 아래는 연구 가설에 대한 기술통계이다.

<표 6 > 영역별 검사결과 기술통계치

		개인금융	고용 문제	정부의 역할	경제적 자유	사례 수
평균	선택과목 경제	2.47	1.90	2.85	3.46	48
	AP 경제학	.449	.769	.614	.416	
표준편차	선택과목 경제	2.53	1.52	2.83	3.52	39
	AP 경제학	.452	.572	.760	.494	

선택과목 경제를 선택한 학생들은 48명으로, 1명은 경제과목을 선택하지 않는 학생이었다. 국제진학을 희망하는 학생들의 수는 48명이지만, AP경제학 시험을 응시하지 않은 학생들과 대회참가학생 등으로 인해 결측치가 발생하여 유효한 사례수는 39명이었다.

<표 5 >에서 보는 것과 같이 AP경제학을 수강한 학생들은 개인금융과

고용문제, 정부의 역할에 있어서 동의하지 않으며, 경제적 자유에 있어서는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나, 경제 전문가들이 합의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는 결과가 나왔음을 확인할 수 있다. 두 집단을 비교해보면, 경제와 개인금융에 대해서는 선택과목 경제를 수강한 학생들에 비해 AP경제학을 수강한 학생들의 평균이 근소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과 관련한 문제에 있어서는 선택과목 경제를 선택한 학생들의 평균이 1.90, AP경제학을 선택한 학생들의 평균이 1.52으로 동의하지 않는 쪽으로 결과가 나타났다. 선택과목 경제를 선택한 학생들이 AP경제를 수강한 학생들에 비해 평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정부의 역할과 관련하여서는 두 집단 사이에 평균 차이가 거의 없으며, 경제적 자유와 관련한 문항들에서는 AP경제학을 수강한 학생들이 선택과목 경제를 선택한 학생들보다 평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표 7 > Levene 등분산 검정

항목	Levene의 등분산 검정	
	F	유의확률
개인금융	.26	.872
고용문제	.461	.499
정부의 역할	1.720	.193
경제적 자유	.792	.376

집단 간 표준편차의 차이를 나타내는 Levene의 등분/산 검정을 통해서 두 집단의 분산이 동일한지 그렇지 않은지를 알 수 있다. 분석 결과, 두 집단의 등분산이 가정된 것으로 볼 수 있다(>.05). 따라서 t검증을 사용하는 데 문제가 없다.

2. 가설 검증 결과

본 연구의 주가설은 ‘선택과목 경제 수업을 수강한 학생들과 AP경제 수업을 수강한 학생들 사이에 시장에 대한 태도의 차이는 없을 것이다.’이다. 두 개의 다른 경제 수업에 따라 학생들이 시장에 대한 태도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음을 검증하기 위하여 독립표본 t-test를 실시하였다.

< 표 8 > 경제 교과에 따른 시장에 대한 태도의 독립 t 검정 결과

항목	t	자유도	유의 확률
개인금융	-.653	85	.515
고용문제	2.564	85	.012 *
정부의 역할	.112	85	.911
경제적 자유	-.574	85	.567

(* : $p < .05$, ** : $p < .01$, *** : $p < .001$)

<표 7>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개인금융, 정부의 역할, 경제적 자유 세 가지 항목에서는 평균에서 근소한 차이를 보였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다. 즉, 선택과목 경제 수업을 수강한 학생들과 AP경제학을 수강한 학생들은 세 개의 영역에서 있어서 태도 차이를 보이지 않았음이 확인되었으며, 이것은 하위 가설 중 세 가지와 합치되는 결과이다. 하지만 고용과 관련한 문제에 있어서는 $p < .05$ 수준에서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3. 논의

본 연구에서는 선택과목 경제 수업을 수강한 학생들과 AP경제학 수업을 수강한 학생들을 각각 경제 교육과 경제학 교육을 받은 집단으로 분류하고, 두 집단 간에 시장에 대한 태도 차이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경제교육을 받은 학생들과 경제학 교육을 받은 학생들 간에 개인의 금융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이 영역의 질문들은 경제적 지식과 연관성이 상대적으로 낮으며, 경제 수업의 수강 여부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 질문들로 구성되어 있다. 예를 들어 의료서비스는 무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은행은 이자를 받지 말아야 한다, 돈이 많으면 행복해진다 등과 같은 질문들은 선택과목 경제 또는 AP경제 수업의 수강 여부가 선택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

두 번째, 고용 문제와 관련해서는 경제교육을 받은 학생들과 경제학 교육을 받은 학생들 간에 .05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발견할 수 있었다. 두 집단 모두 주어진 질문에 동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AP경제학을 수강한 학생들의 경우가 선택과목 경제 수업을 수강한 학생들보다 동의하는 정도가 더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것은 경제 교육을 받은 학생들이 경제학 교육을 받은 학생들보다 실업 문제에 대해 개인적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7차 교육 과정의 경제교육은 시장 경제를 대전제로 한 경제주체의 사회적 역할과 한국 경제 상황의 이해에 중점을 두고, 장기적으로는 경제적 사고를 바탕으로 하는 합리적 의사 결정력 향상을 지향한다(김정호, 2002). 이러한 경제교육의 목표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선택과목 경제 수업이 본래의 취지대로 진행되었다면 AP경제학을 배운 학생들에 비해 고용문제와 관련한 질문에 동의하는 정도가 낮게 나타나야 한다. 하지만 결과는 반대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가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우선 AP경제학 수업을 수강한 학생들은 실업과 관련하여 개인의 문제인지 사회 구조의 문제인지를 중요하게 다루지 않는다. AP경제학의 체계를 살펴보면 실업의 개념과 실업률을 계산하는 방법, 그리고 발생 원인에 따른 실업의 종류에 대해서 배운다. AP를 주관하는 College board에서 배포한 연습 문제와 기출 문제를 토대로 보면 평가 문항 역시 실업의 사례를 주고 그것이 구조적 실업인지, 마찰적 실업인지, 경기적 실업인지를 구분하는 문제나 실업률을 계산하는 것과 같은 간단한 문제를 중심으로 출제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다면 AP경제학을 배운 학생들이 개인의 게으름이나 노력 부족으로 인해 실업이 발생한다는 질문에 동의하지 않는 것은 당연한 결과이다. 경기적 실업이나 구조적 실업은 개인의 노력이나 능력으로 인해 발생하는 실업이라고 보기 어렵고 경제 상황이나 산업 구조 등에 의해 발생하는 실업이다. 마찰적 실업은 자발적 실업이라는 측면에서 설문에서 의도하는 실업과는 상관이 없는 실업이다. 따라서 AP경제학을 배운 학생들은 고용과 관련한 질문에 있어서 상당히 낮은 수준의 동의를 보이고 있다.

연구 대상이 되는 고등학교에서 사용하고 있는 경제 교과서의 실업 부분을 살펴보면 AP경제학의 실업 부분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다. 실업의 개념과 실업률의 계산 방법, 그리고 실업의 유형을 원인이나 자발성에 따라 4가지(경기적, 구조적, 계절적, 마찰적 실업)으로 나누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실업의 원인에 따른 대책을 제시하면서 실업 관련 단원이 마무리된다. 사례가 제시되어 있다는 점 말고는 큰 차이를 발견하기 힘들다.

전체적으로 선택과목 경제와 AP경제학의 교과 내용에 큰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두 집단 간 평균에 유의미한 차이가 발생한 이유는 선택과목 경제를 배운 학생들의 경우 실업 문제를 개인과 사회라는 틀로 접근했기 때문이라고 추정된다. 실업의 발생 원인과 해결 방안을 사례를 중심으로 접근하고 해결하는 과정에서 사회적인 영향이 크지만, 개인적

인 부분도 존재한다는 것을 인식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직업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은 게으르다’, ‘실업자들은 일을 열심히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자리를 잃은 것이다.’와 같은 설문에 AP경제학을 배운 학생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점수를 준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학생과 심층 면담을 실시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실업이요? 실업은 발생 원인에 따라 나눈 거 배웠어요. 경제가 어려우면 생기는 거, 구조가 바뀌어서 생기는 거.....AP한 지가 좀 돼서 기억이 정확히 안 나는데요.....(질문)개인적인 부분은요.....○○선생님께서 무슨, 애들 낳으면 애 본다고 생기는 실업, 그런 거 있다고 했던 것 같은데.....그런 거?.....솔직히 실업하면 그 종류랑 AD가 줄면 GDP가 줄어서 생긴다, 인플레이션이랑 반대 관계다, 뭐 그런 거만 배웠어요. (학생 A)

면담내용에서 알 수 있듯이 AP경제학을 배우면서 실업의 종류와 산출량과의 관계 정도만 배웠을 뿐. 개인적 차원에서 접근하거나, 생각해보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아래 면담에서 나타나듯이 선택과목 경제를 배운 학생B는 개인과 사회적 차원에서의 실업 문제를 이해하고 있다.

.....본인 잘못도 있는데, 아무래도 경제가 어려워서 생기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수업 시간에 무슨 자료로 봤던 것 같은데.....음, 상황이 안 되면 열심히 해도 안 될 수 있는 거니까. 경기적 실업이나 구조적 실업 같은 거는 개인 잘못은 아니지 않나요?

(학생 B)

셋째, 정부의 역할과 관련해서는 집단 간 차이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역할과 관련한 설문 3가지는 모두 정부가 경제문제에 개입하는 정도와 관련된 설문이다. 선택과목 경제와 AP경제학을 수강한 학생들 모두 정부의 직접적인 개입에 대해 비교적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주류 경제학의 이론과 지식을 그대로 가르치는 AP경제학의 경우 미시영역에서는 정부의 개입을 주로 부정적으로 바라본다. 외부효과, 불완전 경쟁, 불완전 정보, 공공재 등과 같은 시장 실패의 경우를 제외하고서는 정부의 개입은 자중손실(deadweight loss)와 같은 자원 배분의 왜곡을 가지고 오는 것으로 나타낸다. 예를 들어 세금이나, 관세 부과 등으로 인해 후생 손실이 발생함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며, 실제 문제에서도 자주 출제된다. 이렇게 효율성의 측면에서도 부정적으로 바라보면서 동시에 형평성의 문제는 거의 다루지 않기 때문에 정부의 개입은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서는 최소화해야 한다고 가르치게 된다. 한편 거시 영역에서는 정부의 정책 위주로 설명하면서 고전학과 케일과 케인즈 계열의 학파들을 비교하는 과정에서 정부의 개입에 대한 장, 단점을 설명하게 된다.

선택과목 경제 교과서에서 거시 영역에서는 정부 정책에 대해 객관적인 방법만을 기술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 개입에 대한 판단을 내릴 근거는 없다. 미시 영역에서는 불완전 경쟁과 외부 효과, 공공재와 같은 시장 실패 요인에 의해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며, 정부의 다양한 시장 실패 개선 방안을 제시한다. 하지만 곧바로 정부 역할의 한계를 지적하며 정부 실패를 같은 분량(2페이지)으로 설명하고 있다.¹⁸⁾ 또한 ‘경제 주체의 역할과 의사 결정’단원에서 정부의 역할을 비교적 구체적으로 다루면서 정부의 역할에 대해 긍정적으로 접근하고 있다. 정부의 개입에 대해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아 선택과목 경제를 수강한 학생들도 정부의 역할의 한계를 인식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경제적 자유와 관련된 영역에서는 두 집단 모두 동의하는 정도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학에서는 개인의 돈을 어떻게 사용해야

18) 7차 개정 교육과정에서 ‘정부 실패’관련 내용은 삭제되었다.

되는지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언급하지 않는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기업은 이윤 극대화를 목표로 하므로 불완전 경쟁 같은 경우가 아니라면 정부가 관여해야 할 필요는 없다. 선택과목 경제에서도 기본적으로 경제학의 기본 원리를 다르므로 이윤 극대화와 주어진 제약 하에서 효용 극대화 하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본다. ‘경제 주체의 역할과 의사 결정’이라는 단원에서 기업의 의사 결정에 미치는 사회, 문화적 환경을 설명하면서 기업은 의사결정을 할 때 사회적 책임과 윤리를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기업의 이윤 추구를 바람직한 것으로 보고, 기술 개발과 혁신 등 기업의 긍정적인 면을 주로 기술하고 있어서 경제학의 내용과 대동소이하다고 할 수 있다.

학생들과의 면담 과정에서 경제교육이 경제학 이론과 지식 교육에 많이 치중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가설 검정 결과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를 할 수 있었다.

AP보다.....윤리나 그런 거는 사실 좀 있어요. 차이는 있죠. 지켜야 할 것들. 그런데 그 부분 거의 안 봐요. 다 아는 내용인데.....그거 왜 봐요. 시험에도 안 나와요. 예, 절대 안 나와요. 나와도 뭐, 당연한 내용인데 뭘. 그러니까 읽으면서 아 그렇구나, 하기는 하지만 시험에는 안 나오니까 유심히 보고 그럴 필요가 없죠. (학생 B)

차라리 경제 시간에 AP했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경제학 공부하는데 AP는 정리가 잘 돼 있잖아요. AP가 더 도움 될 것 같아요. 아니면 경제경시를 하던지. 어려워도 도움 많이 되니까. (학생 C)

경제 교과서에는 경제 윤리나 공동체의 가치 등을 담은 내용이 있으나,

형식적으로만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학생들에게 중요한 것은 시험문제에 출제되느냐 마느냐의 문제인데, 실제 문제에 출제된 적이 없으니 관심에서 멀어지는 것은 당연하다. 또한 학생C은 경제학 교육이 오히려 현행 입시 체제 하에서는 AP경제를 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고 생각한다. 최근 논술이나 면접 비중이 높아지면서 다양한 자료들이 제공되는 편이지만 EBS교재나 경제 참고서, 문제집 등은 어려운 경제 이론을 얼마나 잘 정리하고, 학생들이 쉽게 외워서 문제를 풀 수 있는지에 중점을 두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완전 이론 중심으로 정리되어 있는 AP경제학이 낫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아무래도 그런 것들(윤리나 공동체의 가치를 의미)을 더 생각할 수는 있겠는데.....사실 경제 안 배워도 아는 내용들, 뻔한 거니까. 설문에 답하는데 큰 상관없었던 것 같아요.

(학생 A)

이처럼 선택과목 경제 또한 경제학 중심의 교육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시민적 가치와 관련된 내용들은 부가적으로 아주 쉽고 원론적으로 들어 있기 때문에 거의 의미가 없거나, 그것조차도 암기 대상이 된다. 경제윤리와 관련하여 몇 가지 교수·학습 모형이 논의되고는 있지만, 아직까지는 교사 중심의 윤리 덕목에 대한 강조의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최병모, 박형준, 김경모, 황상주, 2004). 경제교육에서 경제윤리뿐 만 아니라 공동체적 가치나 시민의 역할 등 정의적 영역과 관련된 부분은 구체화되기 어렵고, 선언적인 수준에 그치기 쉽다. 면담 내용을 통해 학생들도 이러한 부분을 인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학생들이 윤리나 공동체, 시민적 가치 등을 내면화 할 수 있도록 하는 논의가 더욱 활발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경제교육을 받은 학생과 경제학 교육을 받은 학생들 간의 시장에 대한 태도 차이 연구에서 개인금융과 정부의 역할, 경제적 자유의 영역에서

두 집단 간 태도의 차이가 없을 것이라는 하위 가설 3가지는 검증되었다. 다만 고용과 관련된 문제에 있어서 유의미한 태도 차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장에서 경제교육의 목표가 의도한대로 달성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보다 폭넓은 연구가 요구된다. 본 연구는 학교와 학생의 특성, 교사 요인 등을 통제한 실험 연구가 아니라 사례 연구이기 때문에 일정한 한계를 가진다. 경제교육의 효과를 검증하는 사전·사후 검사를 하든, 집단 간 비교를 하든 간에 본 연구에서 핵심으로 두었던 경제적 시민성이나 또 다른 경제교육의 목표들을 측정할 수 있는 신뢰도와 타당도를 갖춘 설문지가 개발되어야 한다. 더불어 수업 관찰, 심층 면담 등과 같은 질적 연구를 통해 실제로 교실에서 경제교육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면밀하게 관찰하고 이해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한편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부가적으로 경제교과서와 관련된 중요한 논쟁에 대한 함의를 얻을 수 있다. 교과서는 늘 이념과 관련된 논쟁에서 자유롭지 못했는데, 특히 정치적 지배 관계나 경제 계급, 불평등, 노동문제 등을 직접적으로 다루는 사회과 교과서는 이러한 논쟁의 중심에 서 있었다. 7차 교육과정 경제 교과서와 관련하여서도 각종 이념 논쟁이 줄기차게 이어졌다. 재계나 경제단체 등 한 쪽에서는 경제 교과서가 반시장적, 반기업적이며 좌편향 되어 있다며 지속적으로 교과서의 개정을 요구하였고, 나아가 대안 교과서를 발간하기도 하였다.¹⁹⁾ 한편, 진보계열 시민단체와 경제학자들, 한국사회경제학회 등은 오히려 현행 경제 교과서가 신자유주의를 옹호하며 주류 경제학적 입장에 편향되어 있다고 지적하면서, 대안 교과서를 비판하고 나섰다.²⁰⁾ 본 연구에서 시장을 대하

19) 한국 교과서의 좌편향을 지적하며 보수 계열 학자들이 2005년 교과서 포럼을 창립하였다. 이를 중심으로 기존의 교과서에 대한 비판을 전개하였으며, 『대안 교과서 한국 근·현대사』, 『차세대 고등학교 경제 교과서』를 발간하였다.

20) 장상환(2007: 158-172)는 대안 교과서인 차세대 고등학교 경제교과서가 신

는 태도를 측정하는 설문지인 EAS는 주류 경제학자들의 특정한 이슈에 대한 인식 또는 태도에 학생들의 의견이 얼마나 가까운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설문지이다. 본 연구의 하위가설 4가지 중 3가지는 집단 간 평균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1가지만이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본 연구의 목적이 교과서의 편향성을 측정하는 것이 아니며 특정한 사례라는 한계를 가지지만, 본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적어도 교과서에 의해 학생들이 반시장적인 인식을 가지게 된 것은 아님을 알 수 있다.

고전학파의 경제이론인 주류 경제학적 지배 이데올로기에 편중되어 서술되었으며, 이로 인해 성장 지상주의, 시장 제일주의, 신자유주의 및 세계화 등에 입각한 서술 상의 문제점이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V. 결론

1.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경제 교과 목표에 따라 학생들의 시장에 대한 태도의 차이가 있는지를 선택과목 경제 수업을 수강한 학생들과 AP경제학 수업을 수강한 학생들의 집단 간 비교를 통해 검증하려는 것이었다. 시민교육으로서의 경제교육과 경제학적 지식과 이론을 단순히 전달하는 경제학 교육은 그 목표가 명확하게 차이나기 때문에 시장에 대한 태도의 차이가 있을 것이다. 하지만 경제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교실 현장에서 여러 가지 내·외적 요인으로 인해 양자 간에 차이가 없을 것이라는 가설을 설정하였다.

◇ 주가설 : 선택과목 경제 수업을 수강한 학생들과 AP경제 수업을 수강한 학생들 사이에 시장에 대한 태도의 차이는 없을 것이다.

- 하위가설 1 : 선택과목 경제 수업을 수강한 학생들과 AP경제 수업을 수강한 학생들 사이에 경제와 개인 금융에 대한 태도차이는 없을 것이다.

- 하위가설 2 : 선택과목 경제 수업을 수강한 학생들과 AP경제 수업을 수강한 학생들 사이에 고용에 대한 태도차이는 없을 것이다.

- 하위가설 3 : 선택과목 경제 수업을 수강한 학생들과 AP경제 수업을 수강한 학생들 사이에 경제와 관련된 정부의 역할에 대한 태도차이는 없을 것이다.

- 하위가설 4 : 선택과목 경제 수업을 수강한 학생들과 AP경제 수업을 수강한 학생들 사이에 경제적 자유에 대한 태도차이는 없을 것이다.

가설 검증을 위해서 경기도 소재 ○○고등학교 3학년들을 상대로 양적 사례연구를 실시하였다. 설문지로는 미국 JCEE에서 개발하고 타당도와 신뢰도가 확인된 EAS를 사용하였으며, 선택과목 경제수업을 수강한 학생들과 AP경제 수업을 수강한 학생들 간의 집단 비교를 위해 t검정을 실시하였다.

가설을 검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선택과목 경제 수업을 수강한 학생들과 AP경제학 수업을 수강한 학생들 사이에는 개인 금융, 정부의 역할, 개인의 자유에 대한 태도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에 대해서만 유의미하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 결과와 인터뷰 내용을 토대로 분석한 결과, 현 입시 체제하에서 내신이나 수능에서 높은 점수를 획득하는 것이 중요하게 여겨지는 가운데, 경제 교육은 경제학적 지식과 이론 중심의 수업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음을 알 수 있었으며, 이는 경제교육의 시민 교육적 목표가 제대로 달성되고 있지 못함을 알려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2. 제언

본 연구는 경기도의 한 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여 집단 간 차이 여부를 확인하는 양적 사례연구를 실시하였다. 더불어 사례연구의 한계를 보완하고, 결과에 대한 논의를 더욱 심도 있고 풍부하게 하기 위해서 학생 면담을 실시하였다. 이는 기존의 경제 또는 경제학에 대한 태도를 조사하는 연구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혼합연구적인 성격을 가지는 연구이다. 경제 수업을 받은 학생들의 인식이나 태도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연구하기 위해서는 질적 접근 방법이 더 유용할 것으로 보이지만, 아직은 이것을 주제로 한 연구조차 찾아보기 어렵다. 본 연구는 경제 수업의 효과성 연구에 대한 필요성을 제기함과 동시에, 혼합적인 연구 방법을 사용하여 후속연구에서 질적 접근을 통해 보다 의미 있

는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한 초석을 마련하였다고 본다.

기존의 연구들은 경제 또는 경제학에 대한 학생들의 태도를 측정하는 ATE(Attitudes Toward Economics)를 많이 사용하였다. ATE는 설문 목적의 명확할 뿐만 아니라, EAS(Economic Attitude Sophistication)에 비해 신뢰도와 타당도가 더 높다. 반면 EAS의 경우 학생들의 인식이 경제학자들과 얼마나 다른가를 확인하는 제한된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ATE에 비해 결과를 해석하는데 어려움이 따른다. 이에 본 연구는 EAS를 새롭게 해석하고 적용하여, 시장에 대한 태도라는 개념을 만들어 경제교육과 경제학 교육의 차이를 발견하는데 사용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몇 가지 부분들이 연구의 한계로 지적될 수 있지만,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경제교육이 학생들의 인식이나 태도를 어떻게 변화시키며 어떤 변인들이 작용을 하는지에 대한 설문지 구성, 또는 바람직한 수업 등에 대한 후속 연구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해본다.

선택과목 경제 수업과 AP경제 수업의 목표와 내용은 차이가 있다. 기본적으로 경제학을 바탕으로 하고 있지만, 선택과목 경제 수업은 사회과의 일환으로서 궁극적으로 ‘시민성 함양’을 목적으로 하며 따라서 교육과정을 담고 있는 경제 교과서에도 경제윤리와 사회적 가치, 공동체에 대한 이해 등이 포함되어 있다. 하지만 AP경제학은 오로지 주류 경제학 그 자체의 지식과 내용 이해만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윤리와 가치와 같은 문제는 거의 다루어지지 않고 있다. 결국 경제학을 바탕으로 하지만 목적과 다루는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형성된 지식의 내용 또한 차이가 나게 된다. 선택과목 경제를 배운 학생들은 경제적 지식과 이론에 더하여 윤리나 공동체, 가치와 같은 내용을 배웠어야 한다. EAS를 통해 학생들이 가진 지식과 의견이 일치하는 정도를 평가할 수 있다. 경제에 대한 의견, 태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면 둘 중 어느 한 과목은 지식과 의견이 일치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경제학 지식 그대로인 AP경제학을 배운 학생들의 의견은 전문 경제학자들의 동의한 내용들과 크게 차이나지 않았다. 따라서 집단 간 차이가 발견

되지 않는다면 경제교육을 받은 학생들은 경제교육에서 의도하는 지식과 무관하게 그들의 의견 및 태도를 형성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현재 경제교육이 이론과 지식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수능 위주의 교육 환경 하에서 나타나는 당연한 결과이며, 본 연구를 통해 이러한 현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 사회과 교육의 일환으로서의 경제 교육이 제대로 실시되어 경제적으로 합리적 판단을 내릴 줄 아는 시민을 양성하기 위해서는 정책적인 뒷받침과 교실 안에서의 실질적인 수업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시민 교육으로서의 경제교육의 목표가 달성되기 위해서는 교실에서 일상생활의 경제적 경험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와 관련해서는 문제 해결학습, 경제학적 추론모형, 경제실험모형 등 다양한 경제 교수·방법이 많이 논의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 그러한 방법들이 활용되지 못하는 것은 입시 위주의 교육 현실의 탓이 크다. 경제교육의 목표와 내용, 그리고 수업이 사회과 교육의 목표에 부합하도록 연계성이 있기 위해서는 총체적인 변화가 요구된다. 본 연구는 이러한 논의에 한 가지 실증적 근거를 추가한 것이다.

학생 인터뷰에서 알 수 있었던듯이 학생들은 시험에 출제되는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공부하게 된다. 이것은 학교나 경제 과목을 가르치는 교사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경제이론 중심의 객관식 또는 단답형 시험이나 답이 있는 서술형 문제는 필연적으로 경제교육을 경제학 교육이 되게 한다. 이러한 현상이 지속되면 경제학 이론을 조금이라도 더 많이 아는 학생이 일상생활에서 합리적 판단을 내릴 줄 알며, 경제적 시민성을 갖춘 학생으로 평가되는 결과를 가져온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교육과정을 개정한다 하더라도 사회과 교육으로서의 경제교육이 본래 의도하는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가는데 큰 도움이 되지 못한다. 교육과정에서 경제학 이론의 수준을 조정하고 일상생활과의 연계성을 강조하여 교과서와 각종 참고서에 반영된다고 해도, 결과는 크게 바뀌지 않는다. 경제 교육 과정과 관련하여 경제학적 개념과 이론을 중시해야 한다는 의견과 윤리

나 공동체의 가치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맞서고는 하는데, 어차피 경제 이론이 수업과 평가의 중심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거시적인 논의가 이데올로기적 논쟁 외에 어떤 교육적 의미를 가질 수 있을지 의문스럽다. 궁극적으로는 입시 환경이나 평가 등에 입시 정책 자체의 변화가 있어야 하겠지만, 그에 앞서 학교 경제교육이 교육과정을 수업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반영하고 있는가, 학생들에게 어떠한 변화를 이끌어내고 있는가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한다. 본 연구는 미약하나마 이러한 논의의 필요성을 제기한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고 할 수 있으며, 앞으로의 논의를 활발하게 하는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참 고 문 헌

- 김경모(1996). “경제학의 구조, 경제적 사회화, 경제적 시민성”, 『시민교육연구』, 26(2), pp. 43-56.
- 김경모(1997). “경제교육의 연구동향 분석 - <사회와교육>계재 논문을 중심으로”, 『시민교육연구』, 25, pp. 212-232.
- 김경모(2004). “경제교육의 이해와 실천을 위한 틀”, 『경제교육연구』, 11(1), pp. 109-136.
- 김정호(2002). “제7차 교육과정의 경제교육 목표와 내용 체계”, 『경제교육연구』, 8, pp. 51-71.
- 김진영, 박영석, 이민정(2009). “학교 경제교육에 대한 중등사회교사들의 인식 조사 연구”, 『경제교육연구』, 16(1), pp. 1-28.
- 김진영, 박형준(2004). “학교 경제 교육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시민교육연구』, 36(1), pp. 23-42.
- 박영석(2007). “선택과목 ‘경제’ 교육과정의 타당성 관련 쟁점과 과제”, 『시민교육연구』, 39(3), pp. 121-145.
- 안현효(2005). “경제교육의 관점에서 본 경제학 교육”, 『경제교육연구』, 12(2), pp. 179-197.
- 이소연(2009). “7차 교육과정과의 비교를 통한 2007개정 교육과정 선택과

- 목 ‘경제’ 내용 분석”, 『경제교육연구』, 16(1), pp. 29-52.
- 이소연(2012). 『경제교육에 대한 교사의 신념과 교수 행위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오영수(2008). “중등학교 ‘경제’교과의 변천 과정을 통해 본 학교 경제교육의 현실과 과제”, 『경제교육연구』, 15(1), pp. 27-50.
- 장경호, 한경동(2010). “고등학생의 경제학에 대한 태도 연구”, 『경제교육연구』, 17(1), pp. 49-69.
- 전창완(2004). “우리나라 경제환경의 변화와 경제적 시민성”, 『시민교육연구』, 35(2), pp. 243-270.
- 조영달(1998). “한국 경제교육의 과제와 지향”, 『한국경제교육학회보』, 5(3)
- 조영달(1991). “한국 경제사회의 변혁과 경제교육의 지향”, 『시민교육연구』, 15, pp. 35-52.
- 조영달(2010). 『경제교육원론』, 미간행자료.
- 최병모, 김정호, 허인숙(2004). “세계화와 지식기반경제시대에서의 학생들의 경제의식 조사 연구”, 『시민교육연구』, 36(2), pp. 337-398.
- 최병모, 박형준, 김경모, 황상주(2004). “학교 경제교육의 교수 학습 모형 및 방법에 관한 반성적 고찰”, 『경제교육연구』, 11(1), pp.

137-168.

최병모, 김정호, 허인숙(2004). “세계화와 지식기반경제시대에서의 학생들의 시장경제 인식 및 현 상황과 문제점 및 개선방안”, 『경제교육연구』, 11(1), pp. 83-108.

한경동(2008). “고등학생의 경제 인식 요인분석 - 경제교육과 경제문제를 중심으로”, 『경제교육연구』, 16(2), pp. 145-159.

차경수 · 모경환(2008). 『사회과교육』. 서울 : 동문사.

Barbara J. Phipps & James E. Clark(1993), Attitudes Toward Economics: Uni- or Multidimensional?, Journal of Economic Education, 24(3), pp. 195-212.

Mann, W. R., & Fوسفeld, D. (1970), Attitude Sophistication and Effective Teaching in Economics, The Journal of Economic Education, Spring 1970, pp. 111-129.

Steven L. Miller, & Phillip J. VanFossen(2008), Recent research on the teaching and learning of pre-collegiate economics, Handbook of research in Social Studies Education. Routledge. pp. 284-304.

Robert K. Yin(2003), Case study research : design and methods. 3rd ed. 서아영 외 역(2005), 『사례연구방법』, 한경사.

Schug, M., & Walstad, W. (1991). Teaching and learning economics. Handbook of Research on Social Studies and Learning.

Walstad, W., & Soper, J. (1983), On Measuring Economic Attitudes, *Research in Economic Education*, 9(1), pp. 41-54.

Walstad, W., & Soper, J. (1989), What is high school economics? Factors contributing to student achievement and attitudes. *Journal of Economic Education*, 20(1), pp. 53-68.

Abstract

A Case Study on High School Students' Different Attitudes Toward Markets

– Based on High School Economics
and AP economics –

Tae-Hwan Kim,
Department of Social Studies Education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Major Advisor : Young-Dal Cho, Ph. D.

As a part of social studies education, economic education aims to cultivate a responsible, democratic citizen who understands economic phenomena with knowledge of economics and practices rational decisions made through this understanding. Thus, students who selected economics as their high school elective course must be able to make rational judgment on economic problems that they confront

in everyday life and to develop economic citizenship that allows them to consider social value, economic ethics, and community in that judgment; however, it is doubtful whether economics education is succeeding in accomplishing that grand purpose. Under current educational environment centered on entering colleges, high school economic education is concentrated on economic theories and concepts. Many hitherto researches have also pointed out that economic education is shunned by both instructors and students in class because of its theory-focused education.

Under this situation, confirmation of whether economic education is successful in fulfilling its purpose is needed. Yet, based on review of previous researches, no such effort has been taken; only incomplete surveys on attitudes of economics class attendants toward economy and economics could be found. No extensive study on change of students' attitudes through economics class has been conducted so far.

So, this research aims to check validity of economic education in educational environment centered on entering colleges of Korea. Comparison of students who take economic education and students who take theory -focused economics education has been conducted for the research. Specifically, class type of high school economics(economics as an optional subject) and Advanced Placement economics class has been chosen as independent variable. Research hypothesis for the research is as following.

◇ Research Hypothesis : There will be no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respective attitudes of students who take high school economics and of students who take AP economics, on market.

Sub-hypothesis to support the research hypothesis are as following.

- ◇ 1. There will be no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respective attitudes of students who take high school economics and of students who take AP economics, on economy and private finance.
- ◇ 2. There will be no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respective attitudes of students who take high school economics and of students who take AP economics, on employment.
- ◇ 3. There will be no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respective attitudes of students who take high school economics and of students who take AP economics, on government's role in economy.
- ◇ 4. There will be no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respective attitudes of students who take high school economics and of students who take AP economics, on economic liberty.

Quantitative case study on 97 seniors of high school located in Gyeonggi-do, 48 taking high school economics class and 39 taking AP economics, has been conducted for the research. Two sample t-test has been performed to test the difference in mean of two groups, and student interviews have been conducted for further discussion. According to the analysis, no significant difference on mean was found on private finance, role of government, and economic liberty; significant difference was verified on employment only.

This research has following significance.

First, difference in attitudes of students who take economic education and of students who take theory-focused economics education was corroboratively confirmed.

Second, whether economic education is fulfilling its purpose as social studies education, not as theory-focused education, in educational

environment centered on entering colleges could be examined through hypothesis testing.

Third, unlike previous researches that focused on analyzing students' attitudes and opinions on economic issues and theories, through group comparison of students taking economic education and students taking economics education, this research comprehensively investigated whether educational purpose was successfully transferred to students.

key words : economic education, economics education, high school economics, AP economics, economic citizenship, attitudes toward market

Student Number : 2009 - 23402